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슬그머니 접히나

김동연 부총리 이어 국책기관 KDI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강경정책서 선회 ‘출구’ 필요한 청와대에 ‘명분 제공’ 관측

국책연구기관의 ‘만행’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세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KDI의 이번 발표는 그 무게감부터 다르다.

▶관련기사 2편

그동안 김 부총리와 청와대 간 입장차는 명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상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김 부총리를 향해 장하성 청와

대 정책실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KDI는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내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상 속도 조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

일각에선 KDI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토를 열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압박감과 그동안 유지해온 강경 일변도의 정책 기조 탓에 정책 방향을 돌리는 데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인 KDI의 발표는 무엇보다 좋은 명분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KDI가 단순히 대국민 홍보용으로 보고서를 내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광장히 예민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 문제에서 발을 빼려면 모든 명분이 총동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KDI가 임무를 맡은 것 같다”며 “또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의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공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외부 보고서는 노사 합의를 거쳐 검토자료로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포함된 이번 보고서는 희귀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법적으로 한 달가량 남았다. 김지영 기자 jye@

삼성 따라한 애플?...‘미모지’ 기능 공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부사장이 iOS12에 도입된 ‘미모지(Memoji)’를 설명하고 있다. 미모지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맞춤형 이모지를 만드는 기능이다. ▶관련기사 13편
새너제이/AFP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퇴직급여 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처리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을 공포할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4편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민중노총)은 이날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 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유족자녀 연금 지급 연령은 기존 19세 미만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금이 수렴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

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품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을 공포할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법률공포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박은영 기자 pepe@

사상 최대 ‘해외 배당잔치’에
경상수지 6년만에 최소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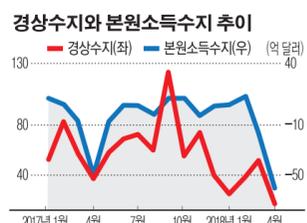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폭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입 관련 상품수지가 다소 부진했던 데다 배당금 지급 확대에 따른 원소득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결과다.

중국 관광객이 두 달 연속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개별 회사에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11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합산한 수지를 의미하는 금융계정 역시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17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것이나, 흑자폭은 2012년 4월(9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0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7.0% 증가한 5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상품수입은 12.5% 늘어난 411억5000만 달러를 보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19억8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작년 5월 16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이는 여



행수지 적자폭이 10억9000만 달러로, 2016년 12월 10억3000만 달러 적자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인 입국자가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9% 증가한 36만7000명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본원소득수지와 배당소득수지 적자폭은 각각 58억6000만 달러와 65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치는 각각 지난해 4월 기록한 49억2000만 달러와 52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가 줄었고 배당금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기업 수익성 개선과 외국인 투자 잔액 증가, 원화절상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의 배당 선호 경향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대표 해임 권고’ 등 사전통지... 제재수위 놓고 공방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 방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 측과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장지 이상 기관제외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개선요구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상 조치사전통지서에는 금감원이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한 제재 범주가 적시된다. 일부 영업장지 이상 기관제외에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능성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측의 의견 진술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시일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6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는 7일과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나, 임시의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측이 요청할 경우 대심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김

원 측은 늦어도 7월 중으로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6월 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감원은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 자체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만큼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60억 원 규모 공모도 미결제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삼성증권에 약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사전통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제재 수위와 관련된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北美정상 12일 오전10시 ‘세기의 담판’

싱가포르서 개최... 백악관 대변인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간이 확정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10시다.

샌더스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최대 압력’이라는 용어는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에 최대 압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 정권을 제재할 것이고, 매우 강력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말을 아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기적인 회담에 앞서 매일 국가안보팀으로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간을 발표하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연합뉴스

터 북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의 투자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발표에서 ‘첫 회담’이라고 언급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싱가포르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몇 차례 열릴 가능성을 암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생규 BTS” ▶18·19
엔터株 ‘볼타오르네’

남북경험 타고 롤러코스터
새나기株 분석 @에코마이스터 ▶20

한은 ‘네오피셔리즘’ 주목
김남현의 왈가왈부 ▶21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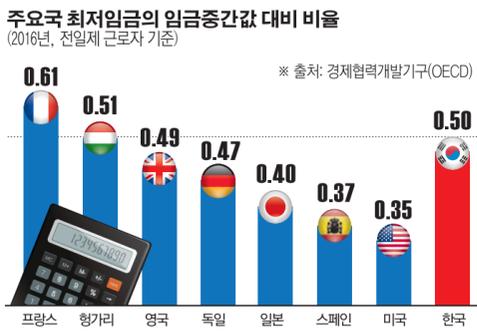
내일 신문은 쉽다... 온라인 뉴스는 계속

KDI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 靑과 잇박자

“단순노동 일자리 줄고 임금질서 교란 우려”

靑 “저소득층에 긍정적 영향” 노동연구원 분석 내세웠지만 KDI ‘득보다 실’ 부작용 경고 “향후 2년간 15% 인상 유지시 인건비 부담, 임금 미준수 늘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좀처럼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도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0년 1만 원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정책이 자칫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내 임금 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지만, 올해와 같은 대폭 인상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급증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개인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노동연의 분석을 내세웠다. 여기에 이상현 국제노동기구(ILLO)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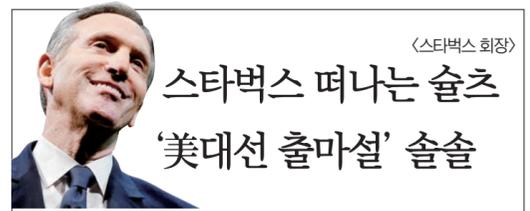


정책국장이 나서서 KDI의 발표를 반박하면서 기간 간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KDI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크지 않다. 최저임금 적용 임금 근로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18만 명 축소됐지만, 1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인구 증가 폭 축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고용 증가 폭 축소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인상을 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68까지 치솟는데, 이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멈춘 프랑스(0.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또 최저임금이 임금 중위값에 가까워질수록 최저임금 적용 임금 근로자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평준화된다. 이는 서비스업 단순노동 일자리 감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 정체에 따른 지위 상승 욕구 약화, 최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최저임금 미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단순노동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연간 취



업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경력 10년 차까지 임금 상승이 사라졌다. 또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프랑스보다 높은 터키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50.1%에 불과했고, 칠레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 35.8%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연장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프랑스는 임금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 정도인데, 올해 15%를 인상하면 우리도 거의 그 수준이 된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iye@



스타벅스 떠나는 스티브 '美대선 출마설' 솔솔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정치적 목소리 2020년 美대선 잠재적 민주당 후보로 거론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체인으로 키운 하워드 스티브(사진) 회장이 이달 말 회사를 떠난다. 스티브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그가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는 스타벅스 회장직을 26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스티브의 은퇴 결정을 두고 그가 2020년 미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배경에는 스티브 회장이 잠재적 민주당 후보로 자주 거론됐었고 그 자신도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었다는 점이 깔려 있다. 스티브는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적인 역할도 선택지 중 하나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스티브가 정치 입문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6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정치 입문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당시 스티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 들어가 일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티브는 1982년 시애틀의 작은 커피 가게였던 스타벅스에 마케팅 책임자로 입사했다. 이후 30년간 스타벅스를 전 세계 77개국 2만8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적 업체로 성장시켰다. 스티브는 2016년 12월 CEO 자리를 케빈 존슨에게 넘기고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스타벅스 CEO로 있으면서 스티브는 인종 간 분별 해소,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스타벅스 직원들이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매장을 열었으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스티브는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난 스티브는 참전 군인이자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가 모든 직원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복지에 신경 쓰는 이유다. 그는 정치에 비판적 목소리도 꾸준히 냈다.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애플워치 카운슬 행사에서 스티브는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7개국에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스티브는 “75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1만 명의 이민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히며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를 겨냥해서는 “매일같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4월 주문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두 흑인 남성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스타벅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스티브는 인종차별 논란에 직접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일로 지난달 예정이었던 스티브의 은퇴가 한 달 늦춰지기도 했다. NYT는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5G 주파수 경매안 제출... ‘최저 3.3兆’ 막오른 쩐의 전쟁

이통3사, 전국망 3.5GHz 업체당 100MHz 총량제한 걸려 눈치싸움 치열 15일 경매 입찰에서 예상 낙찰가 2.6兆 넘어 3.5兆 치솟을 가능성도

통신판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했다. 최소 경매가가 3조3000억 원에서 시작하는데 경쟁 강도에 따라 4조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도 있다. 주파수 확보가 향후 수년간 통신사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만큼 이통 3사 모두 각오가 비장하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해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도록 적정가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치열한 두뇌 싸움에 들어갔다. 15일 5G 주파수 경매 입찰을 앞두고 4일 이통 3사는 각사의 전략이 담긴 주파수 경매안 제출을 마무리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과기정통부에 희망 주파수

대역·용량(대역폭)을 담은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경매는 매물과 입찰가격 모두 역대 주파수 경매 중 최대 규모다. 매물로 나온 3.5GHz(기가헤르츠) 대역 280MHz(메가헤르츠) 폭은 2조6544억 원, 280MHz 대역 240MHz(메가헤르츠) 폭은 6216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2개 대역을 합치면 모두 3조276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 전체 대역폭이 410MHz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입찰 최저가도 사상 최대다. 앞선 주파수 경매 최저 입찰가격은 2011년 1조2000억 원, 2013년 1조4000억 원, 2016년 1조8000억 원이었다.

5G는 4G보다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연결 가능한 기기도 10배 이상 많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경매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통사들이 자칫 5G 주파수를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사에 뒤처지는 것은 물론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 포인트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이다. 정부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3.5GHz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총량제한)를 100MHz 폭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100·100·80’이나 ‘100·90·90’ 등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과열경쟁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데다 경쟁이 가열되면 4조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과거 4GLTE 경매를 주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당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경매에선 최저 경쟁가격이 4455억 원이었던 1.8GHz 주파수가 83년의 입찰을 거치며 가격이 폭등해 결국 SK텔레콤이 2배나 높은 9950억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이통사들은 이미 주파수 경매 전담반을 꾸리고 준비를 마쳤다. 자사에 유리한 주파수를 적정 가격에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경매 전략으로 꼽힌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단 필요한 주파수는 모두 확보하는 게 제1전략”이라면서도 “4G LTE 때처럼 너무 높은 경매가로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dvertisement for Korea Gas Service (한국가스공사) featuring a 24-hour cycle of natural gas usage. The cycle includes: 03:00 (waking up), 07:00 (commuting), 09:00 (work), 12:00 (childcare), 16:00 (carpooling), 19:00 (dinner), 20:00 (bathing), and 03:00 (waking up). The ad lists benefits: 무공해 에너지 (Emission-free energy), 안전한 에너지 (Safe energy), 경제적 에너지 (Economical energy), and 편리한 에너지 (Convenient energy).

“42兆 특급시장”... K뷰티 새로운 약속의 땅 ‘중동’

〈2020년 시장 규모 전망치〉

중동 수출 8년 새 260배 켜짐

무슬림 인구가 밀집한 중동이 K 뷰티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뷰티업체가 중동 지역을 ‘포스트 차이나’를 책임질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시장 선점을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중동 시장은 종교·문화적 특성으로 할랄 인증·제품사전등록제 등 수입 규제가 까다로워 진출이 쉽지 않았으나 현지 유통망을 보유한 파트너사(에이전시)와 MOU 체결을 통한 성공적인 진출 사례가 생겨나면서 K뷰티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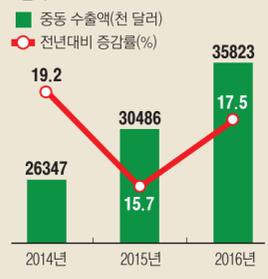
5일 관련업체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5년 180억 달러(약 20조 원) 수준이던 중동의 화장품 시장은 2020년 360억 달러(약 42조 원) 규모로 5년 만에 2배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산업은 연 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하는 등 중동 내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동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한국 화장품의 중동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대(對) 중동 화장품 수출 규모는 13만5000달러(약 1억4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3582만 달러(약 380억 원)로 8년 새 260배 이상 뛰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동은 이미 K드라마, K팝 등 한류 붐이 조성된 지역인 만큼 이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 수출



한국의 중동 화장품 수출 현황

*중동 및 터키의 MTI 2273(화장품) 수출액 기준
※출처: KITA



네이처리퍼블릭, 현지 유통기업과 MOU 사우디 수도 리야드 쇼핑몰에 1호점 오픈 아모레 에뛰드하우스 앞세워 두바이 공략 LG생진 ‘더페이스샵’ 7개국 80여매장 이마트 PB브랜드 ‘센텐스’도 출격 준비

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시장”이라며 “유럽과 미국 제품에 비해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화장품에 중동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국내 뷰티업체의 중동 진출도 급속히 활

발해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유통 그룹인 ‘파와츠 알하카이르’와 파트너사 계약을 맺고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중심 변화기에 위치한 최대 규모 쇼핑몰에 1호점을 오픈했으며, 연내 대도시 중심의 대형 쇼핑몰에 5호점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올해 초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안착을 시작으로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매력이 있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중동 사업에 첫 삽을 떴다. 에뛰드하우스는 3월 아시아 메이크업 브랜드 최초

로 두바이 최대 상권인 두바이몰에 1호점을 오픈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매장 론칭을 준비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동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현지 피부톤과 니즈를 반영한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컬러 변화를 줬다.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쿠션 등 페이스메이크업은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피부색에 맞춰 16가지로 확장했고, 립스틱과 아이섀도 역시 중동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파악해 신규로 출시,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도 자체 브랜드(PB) 화장품인 ‘센텐스’로 중동을 공략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와츠 알하카이르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 수도 리야드와 제다 등 2개 대도시에 첫 매장을 열며 연내 최대 6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중동 시장에 진출한 LG생활건강은 ‘더 페이스샵’ 브랜드로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 8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카타르에 2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방침이다. 중동 진출 당시 여성의 평균 연령이 낮고 10~20대 소비자층이 두꺼운 점을 감안해 젊은 소비자를 적극 공략, 시장에 안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 닥터자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5개국 20개 세포라 매장에 입점해 중동 시장 진출 2년 만에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토니모리도 중동 5호점까지 매장을 열고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K뷰티, 유럽서 日 꺾었다

작년 1억3579만 유로 어치 수출 8년 만에 12배 ↑...5대 수입국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유럽의 5대 화장품 수입국의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발표한 ‘유럽 K뷰티 붐과 마케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유럽의 5대 화장품 수입국에 올라섰다. 지난해 유럽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은 1억3579만 유로 상당으로 2010년 1133만 유로와 비교하면 12배나 성장했다. 2016년 대비로도 46.8%나 급증했다.

미국이 12억1071만 유로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고 중국(6억3084만 유로), 스위스(5억7410만 유로), 캐나다(1억3699만 유로)가 2~4위다. 일본은 1억2775만 유로로 우리나라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8년 전 세계 화장품 시장 2위 국가인 중국을 발판 삼아 성장해왔다. 그러나 점차 한계를 느끼면서 시장 다각화에 나서 중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시장 등 세계 각국으로 점진적 확대하며 K-뷰티를 전파해가고 있다.

곽도훈 기자 soqood@

삼성 신경영 25년

‘1등의 위기’ 주목받는 JY리더십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삼성 경영을 승계한 지 5년째가 되던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말이다. 삼성은 이 회장의 이 발언을 기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른바 오늘날 삼성을 만든 ‘신경영’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견희 회장은 2013년 신경영 20주년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영원한 초일류 기업을 만들자”는 내용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그룹 안팎의 자만심을 경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우리는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신경영은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 신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이견희 삼성 회장.

이재용, 출소 후 해외출장만 3차례 보호무역 대응·미래동력 발굴 의지 인공지능·전장, 신성장 중심축으로 美·캐나다·러시아 등 AI 연구센터 글로벌 최고인재 영입도 직접 챙겨

신경영 25주년이 된 현재 삼성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신경영을 선언했던 이견희 회장은 4년째 와병 중이고, 이 회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현재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견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으로 삼성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질적 성장 기반 위에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자신만의 DNA를 삼성에 이식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감한 M&A(하만, 비브렘)와 정공법(겔노트7 단종, 순환출자 해소), 실용주의(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무노조 경영 철폐 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집중하며 글로벌 초일류를 넘어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

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2월 초 석방 이후 해외 출장만 3차례 떠난 것은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직접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상하는 삼성 신성장 동력 중심축은 인공지능(AI)과 전장이다. 3월 유럽,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 동향을 파악했고, 이후 삼성전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에 AI 연구센터를 잇따라 개소했다. 글로벌 최고 실력자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삼성은 인공지능 분야

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했다. 업계는 이번 석학 영입 과정에 이 부회장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도 1980년대 반도체 사업 본격화에 앞서 ‘S급 인재’ 영입을 위해 직접 뛰어다녔다.

이 부회장은 전장사업에도 승부를 걸고 있다. 전장 부문 글로벌 기업 하나를 인수했고,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 최근 양산한 자

동차용 D램과 낸드플래시는 중국 전자 업체 BYD 등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오토를 개발, 아우디 자율주행차에 이를 납품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를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될 차량용 플렉시블(휘어지는) OLED 패널을 최근 대거 공개했다. 삼성은 1998년 9월 자동차 산업에서 손을 뗐지만, 자동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장부품을 통해 전 세계 자동차에 ‘삼성’을 심고 있는 셈이다. 송영록 기자 syr@

Sulwhasoo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니다
설화수 맨 분운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분운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보호무역’ 거센 파고 부딪힌 한국 철강산업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각국 수입규제 모두 95건

우리 수출품목 전체 규제의 47%...미국 28건 가장 많아

2000년대초 과잉투자 “장치산업 특성상 구조조정 어려워”

국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의 거센 파도를 맞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95건으로, 이는 우리 전체 수출품목에 가해진 202건의 47%에 달한다.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이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건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21건, 상계관세 7건 등 모두 28건(29.4%)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 구경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을 포함, 냉간 압연 강관·탄소 합금 후판·열연 강판 등 다양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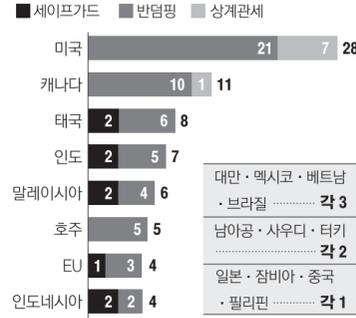
특히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들고나와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의 철강 산업을 압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4월 232조 조사를 시작해 올해 3월 대상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32조 대상국에선 제외됐지만, 대(對)미국 철강 수출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인 268만 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11건, 태국 8건, 인도 7건, 말레이시아 6건, 호주 5건, EU·인도네시아 4건, 대만·멕시코·베트남·브라질 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 각 2건, 일본·잠비아·중국·필리핀 각 1건 등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있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과 캐나다 각 2건, EU와 터키 각 1건 등 6건의 수입 규

국내 철강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무역협회



제가 우리 철강에 가해졌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철강이 대부분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으로, 확장력이 크기 때문에 자국 철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EU, 캐나다, 멕시코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등 분쟁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2일(현지시각)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

아·캐나다·일본 재무장관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반발하는 비난 성명을 냈다.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다”라며 “이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므누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역 전쟁이 아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관계자는 “철강은 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이면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철강산업이 호황일 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철강 생산시설에 과잉 투자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립 기자 riby@

외환보유액 3989억 달러 3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

달러 강세에도 외화자산 운용수익 늘어

외환보유액이 3990억 달러에 육박하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다만 증가 규모는 석 달 만에 가장 적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3984억2000만 달러) 대비 5억6000만 달러(0.1%) 증가한 398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주요 글로벌 은행에 보관해 둔 현금성 예치금은 44억5000만 달러 늘어난 22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나 정부기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전월 말 대비 38억 달러 감소한 3663억5000만 달러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6000만 달러 줄어든 33억4000만 달러를, IMF 회원국 출자금 납부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에 대한 교원성통화 인출권인 IMF포지션은 3000만 달러 감소한 1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104.4톤)였다.

김원태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달러화 강세에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5월 현재 주요 6개국 통화환에 대상으로 하는 달러화지수(DXY) 기준 달러인덱스는 94.0으로 전월 대비 2.3% 올랐다. 이는 2016년 11월 3.1% 상승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절상 폭이다.

통상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환보유액은 감소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업 외화에 금 확대와 환율시장 개입 추정물량에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데 이어 이달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3조1249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 2560억 달러), 스위스(812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66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홍콩(4345억 달러)과 인도(4205억 달러)가 우리나라보다 앞섰고, 브라질(3800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산지-거점유통-분산물류-소비자 4단계 수산물 유통 고도화 추진 2022년 유통업 매출 35조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지위판장-거점유통센터(FPC)-소비자 분산물류센터(FDC)-소비자를 연계하는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망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유통을 고부가가치화해 수산물 물가가 낮추고 유통업 매출액은 늘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지 위판장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수산물 거점지역 10곳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 전 통시장은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FPC를 10곳, 주요 대도시 권역에 FDC를 6곳 만든다. 이를 통해 산지위판장-FPC-FDC-소비자(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FPC는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와 절단·소분포장 등 부가가치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화 요구를 충족하고 FDC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 생산·위판·유통 및 가격·소비현황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2015년)에서 2022년 62kg, 수산물 유통업 매출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35조 원, 수산물 물가상승률은 6.8%에서 3.4%로 낮춘다는 목표다. 박도훈 기자 soaood@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



이종대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신임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조찬 간담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지방세 감면·R&D 지원’ 에너지단지 내년 지정

창업·수출센터 등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나서

정부가 에너지산업 기업 집중 육성의 기반이 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단지)를 내년 지정한다. 이 단지의 입주 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R&D)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20% 달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융복합단지의 세부 유

형을 확정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단지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 산업부 장관 직권 또는 사·도지사 요청에 따른 검토를 통해 에너지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단지에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과 지원, 전문연구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 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단지 입주 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에너지기업 성장의 환

경도 조성한다.

또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R&D, 인력양성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단지의 유형으로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태양광,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에너지산업 실증형 클러스터(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 태양광) 등을 예로 제시했다.

에너지단지 대상 지역은 에너지·연관산업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일자리 창출과 집적·융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 지역,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업·기관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박병립 기자 riby@

기술보호지원 법률 개정 연말 시행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사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할 경우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송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그동안 피해

중소 기술탈취 중소벤처부가 직접 조사 시정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공표

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 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

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제도는 우선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거서류를 첨부해 중소기업에 서면

으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소기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 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침해 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할 수도 있다.

배석희 중소기업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김하니 기자 honey@

국토부, 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 의심사례 68건 적발

해외 살며 '로또단지' 당첨 불법 청약 85% '위장전입'

다에이치자이 개포 등 5개 단지 점검 특사경 수사 의뢰·계약 취소 등 조치 하남감일·미사 지구 주요단지도 조사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4월에 다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 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다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일례로 A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국토부 파악 결과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km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B씨와 그 자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를 분리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C씨는 청약 서류에 서울 주민등록 주소를 썼으나 국토부가 전화로 거주지를 다시 확인하자 2014년 6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털어냈다. 서울이나 과천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청약 서류에 국내 주소를 적어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순위로 청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엔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시 방경철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월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섬 마을에도 소중한 한 표 담으러 가요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현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 윤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함을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家 이명희 영장 기각

법원 "혐의 사실·법리 다툼의 여지"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를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법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이 전 이사장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 전 이사장이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손찌검을 해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솔 기자 charmy@

제2 개성공단 폐쇄사태 없도록...

법무부, 南北경협 재개 대비 법적 준비 분쟁 해결 등 합의서 개선 연구용역

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법적 준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남북경협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개정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과 우리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들여다보는 남북합의서는 2003~2005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법무부는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협이 재개될 경우 관련 합의서, 법률 개정 협의의 등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은 합의서와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경협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잡음을 냈다. 2010년 북한은 금강산 내 남북 자산을 동결, 몰수하거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 내 설비 등을 동결한 바 있다. 2009년 개성공단 보일 러공이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귀환한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개성공단 운영 과정 등에서 미진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며 "향후 경협이 재개됐을 때 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있을 것을 대비해 현재 남북 상황에 맞게 우리의 개정안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롯데 임원 "차 독대 전 면세점 추가 사실 인지"

신동빈 회장 향소심 2차 공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 독대하기 전 정부가 이미 롯데그룹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검토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향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후 기획재정부 직원을 만났더니 '기다려봐라,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무엇인가 움직임을 있다는 짐작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이 "신규 특허를 내주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신규 특허가) 몇 개 필요하느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등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관세정장은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2월 1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3월 14일보다 한 달 앞선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환호했고 특허를 추가해주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기 전부터 정부는 이미 면세점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보면 롯데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씨의 증언은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만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물어주거나 부실화한 롯데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일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선 기자 only@

오래 기다리셨죠? 주식수수료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모바일증권 나무가 돌아왔습니다

대상: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수수료는 0원하게, 서비스는 영원하게!**

지금, 모바일 증권 나무와 만나보세요 • 행사기간 : 2018.03.19 ~ 2018.06.3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1249호 (2018-03-15 ~ 2019-03-14)

“癌 걸리면 무조건 지급... ‘직접적 치료’ 개념은 허위”

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 ⑤ <끝>

최철규 '보암모' 위원회 회장

보험설계사였던 아내 癌 걸렸지만 믿었던 보험금 한 푼도 못받아 ING생명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고발센터 만들어... 회원 1000명 癌보험 분쟁조정 7000건 넘어



오승현 기자 story@

“아내가 암(癌)에 걸렸다. 직장암 3기였다. 2003년부터 2년간 보험설계사 활동을 했던 아내의 암보험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암에 걸리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철규 '보암모' 위원회 회장은 쉼 없이 말을 쏟아냈다. 이따금씩 숨을 고를 때면 아내의 입술이 '모호한 약관'으로 촉발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심각성을 짚어주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ING생명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의뢰했다. 최 회장은 “혼자 대응하기에 상대는 너무 거대했다”며 “단체행동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보암모의 전신인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 고발센터’를 만든다. 1월에는 500명이 모였고, 2월이 되자 1000명까지 회원이 늘었다.

사람이 모이자 힘이 생겼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별 보험사들을 향했던 아우성이 보험업권 전체로 커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단순히 보험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최 회장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주겠다’

에 나온 것”이라며 “그 전 약관을 보고 보험에 든 가입자들한테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보험사 34개사 중 27개사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요건을 암 치료를 직접목적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변경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쟁점이다. ‘직접적인 암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의 근거는 2008년 대법원 판례다. 최 회장은 “요양 치료에도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보험사나 당국은 여전히 2008년 판례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2008·2016년 판례 모두 앞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이었다며 “짜지고 보면 사실상 두 판례 모두 근거로서는 힘이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판례만을 근거로 삼는 보험사와 당국의 기준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가기란 쉽지 않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좋을 게 없다”며 “1, 2심까지 다 따져보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도 많은데 정작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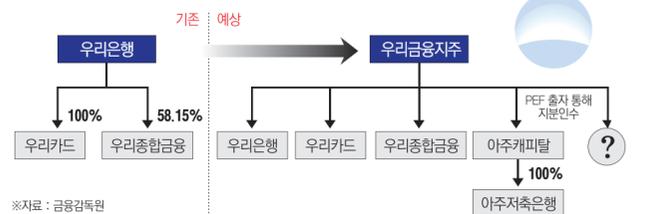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최 회장은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암보험 분쟁조정 결과다. 현재 금감원은 700건이 넘는 암보험 관련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이 7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최 회장은 “6·13 지방선거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론이 나기 전에 광화문 집회, 국회 공청회 등을 열어 금감원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보험금 부지급 이슈를 보험업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암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회귀성 질환 등 수많은 보험 부지급 분쟁이 있다”며 “다른 단체들과 힘을 모아 환우회회를 만들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지주사 추진 우리銀, 하이투자證 인수할까

자기자본 130%까지 출자 가능해 자금 7000억서 7.6兆로 늘어나 3분기 내 인가 목표 19일 이사회 DGB 등 경쟁사 M&A 제동도 한 몫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시 지배구조



※자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속도에 맞춰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다시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우리종합금융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보다 새로운 증권사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증권업계 인수합병(M&A)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5월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분기 내 지주사 인가를 목표로 19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하고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연말 주주총회를 열어 연내에 지주사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증권 계열사 인수 대상으로 하이투자증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출자 여력은 7000억원에 그치지 않고 지주사로 전환되면 출자 여력이 7조 6000억원으로 증가해 M&A로 비은행 금융사를 사들일 수 있다. 현행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 이상 출자할 수 없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아 자기자본의 130%까지 출자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첫 증권업 M&A 대상이 주목받는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하이투자증권을 사들이게 되면 증권업 역량 확대뿐만 아니라 자산운용까지 거느릴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하이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한 번 검토한 이력이 있는 만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개월간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밸류이션을 다시 측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을 두고 경쟁 중인 지주사들의 M&A 작업에 차질이 생긴 점도 우리은행의 인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두고 DGB금융지주와 우리은행-IMM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간 2과전으로 좁혀지며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다.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박인규 전 회장의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올해 3월로 예상됐던 당국 승인은 무기한 연기됐다.

DGB금융은 신임 회장의 취임 후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등 M&A 작업 마무리를 위한 준비에 나섰지만 기관경고 등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BNK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의 차기 매수자로 떠올랐지만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감원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분 영업정지 결정을 받아 M&A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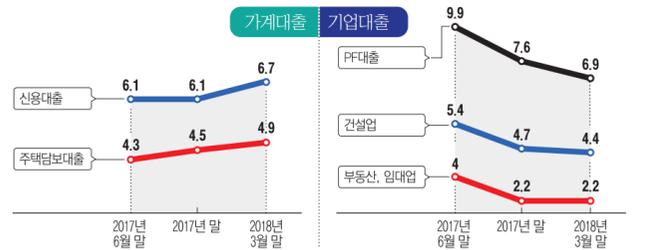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이 시급한 당면 과제인 만큼 M&A는 좀 더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따져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인수 후보군으로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도 함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저축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리스크 관리 해야”

4.9%로 작년말 대비 0.4%p 늘어 금리상승 추세... 부실 심화 가능성

저축은행 업종별 연체율 현황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 6.7%로 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잠재적 부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작년 말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7%를 기록,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새 가장 높았다. 고정이 하여신비율 역시 5.2%로 전년 말에 비해 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전년 말 대비 0.3%p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 추세, 경기흐름 등을 감안할때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 79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32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 (175억 원) 줄긴 했지만 대규모 흑자를 유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저축은행 순이익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철우 기자 acw@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난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될거야~”

“나는 우주로 갈거야!”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영상이 궁금하다면

총 상금 7억원에 도전하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8.5.1 - 2018.6.30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삼성 vs 애플, 더 커진 스마트폰 전쟁

올 하반기 플래그십 출시 예정
역대 최대 크기로 글로벌 공략

삼성 '갤럭시 노트 9' 6.38인치 전망
'갤럭시 노트 8' 보다 0.06인치 커져
애플 '아이폰 X 플러스' 6.5인치
0.7인치 키운 패블릿폰 계획



삼성전자가 애플이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대화면 전쟁을 예고했다.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크기인 각각 6.38인치와 6.5인치 패블릿(Phablet) 스마트폰을 준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5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을 8월 초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갤럭시노트 8' 공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빠른 일정이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갤럭시노트9' 공개 행사가 8월 9일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은 역대 최대 크기인 6.38인치 대화면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노트 8'의 6.32인치보다 0.06인치 더 커지는 셈이다. 엑시노스 9810과 퀄컴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가 교차 탑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맞선 애플 역시 아이폰에 역대 최대 크기인 6.5인치 화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X 플러스(가칭)'로 불리는 이 제품은 5.8인치 아이폰 X 후

속 모델이다.

패블릿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대화면 스마트폰을 일컫는다. 폰(phone)과 태블릿(tablet)의 합성어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 '아이폰X' 등이 대표적이다. 태블릿은 통상 7인치대에서 8~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패블릿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을 거뒀다. 이후 중국을 포함한 경쟁 국가와 기업들

도 대화면 스마트폰 채택을 확대했다. 미니멀 디자인 철학을 추구해온 애플 역시 스티브 잡스에서 팀 쿡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패블릿 스마트폰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반대 여론에도 2014년부터 큰 아이폰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애플의 패블릿 전략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은

52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5.8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아이폰X'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6000만 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은 시장점유율 22%를 기록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장 선두에 올랐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가보니

쌍용양회 동해공장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 킬른이 가득 중에 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에너지저장장치·폐열발전... 친환경 설비로 전력 30% 절감

"한엔컴퍼니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부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감행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와 막바지에 접어든 폐열발전설비로 공장 전체 전력비의 30%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섬섬이 들어가는 공장 설비로 '후끈'했다. 140m 높이의 예열기들은 멀리 떨어진 입구에서부터 한눈에 들어왔다. 동해공장 직원

시스템이다. 이는 곧 원가절감 효과로 이어졌다. 동해공장의 ESS실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용한다. 고압차단기와 변압기, PCS 그리고 2800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돼 있다. ESS 발전 현황은 중앙 컴퓨터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최근 2년 동안 가동 중인 모든 킬른의 버너를 교체해 저열량탄이나 페트코크(석유정제 부산물) 등의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늘렸다.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 폐열발전 현장 사진제공 쌍용양회

다. 나아가 1호 킬른 냉각기의 효율적인 열교환을 위해 최신 설비도 들어왔다.

쌍용양회는 현재 폐열 발전설비를 건설 중이다. 4번 킬른 앞에 설치한 발전설비는 한눈에 봐도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다. 시멘트 원료 가운데 하나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1000도 이상의 고열이 사용된다. 소성(1~2차 가열) 공정을 거친 이후 350도까지 떨어

한엔컴퍼니 인수 후 투자·발전 이어져
세계 최대 단일 시멘트공장으로 우뚝
원료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멘트업계 톤당 2만6000원 비용부담

들의 열기 역시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1450도의 '킬른(소성로)' 열기만큼 뜨거웠다.

쌍용양회는 1962년 설립했다. 꾸준한 시설투자를 거듭해 현재 단일 시멘트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변화를 꾀해 왔다. 이 같은 혁신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주주 한엔컴퍼니로 변경되면서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먼저 이곳 동해공장은 친환경 설비인 ESS설비를 도입했다. 올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ESS는 전력 사용 비용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해 두고 비용이 높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폐열 발전설비는 이 방출열을 회수해 다시 전력으로 생산하는 설비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절감하는 노력으로 쌍용양회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분기에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친환경 공정을 확대하는 쌍용양회에도 고민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2015년에 거래제가 도입된 후 시멘트업계는 톤당 2만 6000원의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추대영 공장장은 "동해공장을 비롯한 국내 시멘트업계가 매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쌍용양회를 비롯한 국내 시멘트 업계는 기술 개선과 동시에 환경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당면한 위기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친환경차·SUV 앞세운 부산 모터쇼 '반쪽행사' 오명

백스코서 8일부터 열흘간

국내외 19개 완성차 브랜드 200여 대 신차 전시
쌍용차 비롯 폭스바겐·혼다·포르쉐 등 대거 불참 선언
군산공장 폐쇄 한국지엠, 중형 SUV '이퀴녹스' 첫 공개

개막을 사흘 앞둔 '2018 부산 국제 모터쇼'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총 19개 완성차 브랜드가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차와 SUV 모델로 '부산 런웨이'를 장식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는 쌍용차를 비롯해 수입차에선 폭스바겐, 혼다, 포르쉐, 캐딜락 등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행사'라는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 모터쇼에는 국내외 19개 완성차 브랜드가 총 200여 대의 최신 모델을 전시한다.

군산 공장 폐쇄로 흥행을 치른 한국지엠은 중형 SUV 쉐보레 '이퀴녹스'를 첫 공개한다. 한국지엠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29만 대 판매된 이퀴녹스로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쏠겠다는 각오다. 디젤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SUV 시장을 고려해 1.6 디젤 모델을 내세울 예정이다.

현대차도 SUV 카드를 꺼냈다. 주인공은 준중형 SUV인 '투싼'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아시아에서 첫선을 보



'2018 부산 국제 모터쇼'가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부산 백스코서에서 열린다. 이번 모터쇼는 쌍용차를 비롯해 수입차 폭스바겐, 혼다, 포르쉐, 캐딜락 등이 불참을 선언해 '반쪽 행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2016년에 열린 부산 국제모터쇼 전경. 사진제공 백스코

인다.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콘셉트카 '르 필 루즈'도 국내에서 첫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 회사의 친환경차 라인업 총망라해 전시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넥쏘'를 포함해, 순수 전기차

5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중심의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번 모터쇼에서 니로 EV의 내장 디자인도 최초 공개한다.

수입차 중에 눈길을 끄는 브랜드는 단연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이다. 특히, 디젤 게이트 파동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한 아우디는 이번 모터쇼에서 총 11대의 새 모델을 선보인다. 이 회사는 미래 이동성을 제시하는 3종의 콘셉트카와 대형 세단 A8, SUV Q5-Q2, 고성능모델 TT RS 쿠페 등을 전시한다.

수입차 업계 '톱'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EQ의 새로운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BMW도 쿠페형 SUV X2를 이번 모터쇼에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 출시표를 던진다.

안타깝게도 국산차 메이커 가운데 쌍용차가 이번 행사를 등졌다.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혼다와, 포르쉐, 캐딜락 등도 모터쇼에 나오지 않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부산모터쇼가) 국제모터쇼라기보다 부산 현지 수입차 업체의 마케팅 행사가 전락하고 있다"며 "수입차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이 외면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고공행진' LCC... 제주항공·진에어 1위 경쟁 치열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중·단거리노선 집중
2006년 탑승객 18만명서
지난해 1047만명으로 58배 쑥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LCC 본연의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 제주항공과 중·대형기를 활용한 장거리노선 강화에 나서고 있는 진에어의 차별화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항공의 연간 탑승객 수는 1047만 명으로 2006년 18만 명과 비교해 58.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월 말 현재 일평균 항공기 운항 수는 195편이었으며, 이를 통해 3만3000여 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5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총운항 항공기 숫자를 39대로 늘려 하루 평균 195편의 항공기 운항, 하루 3만3000명의 승객 수송 체제를 갖춰 승객들의 선택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역시 16만 명(2008년 기준) 수

진에어는 장거리노선 강화
국제선 여객 수송객 30% 증가
최근 노년리스크로 주춤 우려

준이었던 국내 연간 탑승객 수가 2017년 86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송객은 493만 명으로 전년도 대

비 30% 증가했다. 항공기 보유 대수도 지난해 1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B737-800 22대, B777-200 ER 4대 등 총 26대로 늘었다. 진에어는 올해 B737-800 3대, B777-200ER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기존 B737-800 1대를 송출해 연말까지 기단을 총 3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나, 양

사의 전략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단일기종으로 기단 규모를 확대하며 중·단거리 위주의 장공법을 택한 반면, 진에어는 중·대형 항공기로 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CC 시장이 아직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전략 차이로 인한 결과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실적 측면에서 다소 앞서고 있으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진에어가 노년리스크로 인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오비맥주 고동우 대표(가운데)와 카스 모델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뒤집어버려'의 메시지를 담은 카스 후레쉬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오비맥주

D-9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유통街 ‘월드컵 마케팅’ 후끈

롯데마트·이마트, 주류·간식 할인
편의점도 16강 진출 기원 이벤트
버드와이저 ‘레드 라이트컵’ 한정판

지구촌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2018 러시아 월드컵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과 식음료업계 가 월드컵 특수 물이에 나섰다. 관련업계는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나 13일 지방선거 같은 정치 이슈로 월드컵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진 않았지만 대회가 다가올수록 열기가 달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6일까지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 맥주와 안주를 할인 판매한다. 월드컵 기념 한정판 버드와이저(473ml) 4캔을 9000원, 카스(500ml) 5캔을 9000원에 판매한다. 하이네켄(650ml) 맥주와 동원 육포 3종(각 50g)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계없이 4개를 1만 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경기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치킨·피자 등 즉석 조리식품 물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간식과 주류, 음료 할인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도 월드컵 마케팅에 한창이다. CU는 6월 한 달간 오후 6~9시에 BC카드와 NH농협카드 로 결제하면 즉발, 훈제 닭다리, 마늘 곱창볶음 등 인기 야식상품을 30% 할인해준다. 행사 기간 국가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



미에서 카카오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600원을 할인(1일 1회, 월 2회)해준다.

GS25는 한국의 예선경기가 열리는 당일 BC카드 로 수입 맥주 8캔을 사면 5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줘 1만5000원에 판매한다. 개막전이 열리는 14일부터 30일까지 안주류 16종에 대해 '1+1' 행사도 한다. 세븐일레븐은 코카콜라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코카콜라 6종을 구매한 뒤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월드 축구공 10톤' (1명)을 지급한다.

이번 월드컵이 대체로 저녁 시간에 진행된다의 점에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러시아 월드컵 공식 후원 브랜드 버드와이저는 전 세계 TV 광고,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 및 전용잔 출시, 최우수 선수 시상 등을 통해 월드컵 흥행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월드컵 관중들의 응원 열기와 에너지를 상징하는 월드컵 스페셜 전용잔 '레드 라이트컵' (사진)을 50여 개국에서 선보인다. 관중의 함성 크기에 반응해 점등되는 레드 라이트 컵은 버드와이저의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 불빛을 내뿜도록 특별 디자인됐다.

월드컵 마케팅의 큰 주제를 '뒤집어버려'로 정한 오비맥주는 '카스 후레쉬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를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카스 로고의 상하를 거꾸로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제품 상단에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식 로고를 배치함으로써 '월드컵 맥주=카스'라는 공식을 강조했다. 355ml·500ml·740ml 캔, 500ml 병 제품을 판매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른 더위, 갑갑함은 벗어던지자 女패션에 부는 '탈 코르셋' 바람

통풍 잘되고 착용감 좋은 이너웨어 선호
바지도 스키니진보다 와이드팬츠 인기

최근 연일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패션 시장에 '탈 코르셋' 바람이 불고 있다. 쉽게 땀과 습기로 답답함을 느끼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몸을 조이는 이너웨어, 스키니진 대신 느슨한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을 앞세운 가벼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4월 28일~5월 27일) 노와이어브라 판매가 지난해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체형 컵이 내장된 별도의 브라 착용이 필요 없는 브라탑 판매도 35% 늘었다. 같은 기간 볼륨업브라(-11%)와 거들(2%) 판매가 감소했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된 것과 확연히 차이다. 이너웨어 외에도 넉넉한 핏의 와이드팬츠가 오랜기간 유행했던 스키니진을 제치고 96% 증가한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너웨어도 가벼운 착용감의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컨스킨의 '뉴베이직 튜브 브라'는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하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입지 않은 듯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앞쪽에 내장된 특별패턴이 브래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줘 더 유용하다. '베이지 캐미브라' (사진)도 일반 브라와 다른 어깨끈 덕에 옷이 얇아지는 여름철에도 속옷 비침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게 해준다.

세컨스킨 여지수 브랜드디자인 팀장은 "최근 소비자 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가볍고 탄력성이 뛰어난 이너웨어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며 "갑갑함을 덜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탑과 브라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브라탑'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많다. 비비안의 '모달스판 브라탑'은 시원한촉감의레이온 소재를 적용, 땀과 습기로 인한 답답함을 대폭 줄였다. 한여름에도 쾌적한 활동을 보장해주며,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디건 등과 함께 연출하기도 좋다.

여유 있는 핏으로 몸에 붙지 않으면서도 스타일을 살리기 좋은 와이드팬츠도 인기다. 세컨스킨의 '베이지 9부 와이드팬츠'는 부드러운 보디라인을 살려주는 디자인과 편안한 활동성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넓은 보폭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더운 날씨에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다. 로사W의 '탈랑팬츠'도 자연스럽고 풍성한 스커트 팬츠가 피부에 닿는 불쾌감을 줄여주며, 허리선이 높은 디자인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

고현실 G마켓 패션뷰티 실장은 "갑작스럽게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답답함을 유발하는 제품 대신 통풍이나 흡습성이 뛰어난 패션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인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점도 이런 트렌드를 이끄는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점포당 매출 3개월 연속 증가... 편의점, 웃었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구조적 둔화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만 개를 돌파한 편의점 출점 경쟁으로 인해 업황 전반의 침체가 우려됐으나 신선식품 강화 등 상품 경쟁력을 높인 업계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면서 향후 율 1분기보다 개선된 실적도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점포당 매출액은 5077만 원으로 전년 동월(5072만 원) 대비 0.1% 증가했다. 대형마트(-4.9%)와 백화점(-0.2%), 기업형 슈퍼마켓(SSM, -0.3%)의 점포당 매출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소폭이지만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했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감소(-3.5%)하기 시작해 3월(-1.9%), 5월(-3.5%), 8월(-5.2%), 11월(-3.1%), 올 1월(-2.6%) 등 12개월 연속 1~5%대 역성장했다. 그러나 2월 0.4%로 반등했으며 3월 2.0%에 이어 4월까지 3개월 연속 오름세로 반전됐다.

편의점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점포당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CU(BGF리테일)는 1분기 매출이 1조3161억 원으로 전년 동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 (단위: %)



마트·백화점·SSM 매출 줄었지만
편의점, 지난달 0.1% 나홀로 성장

출점 경쟁·최저임금 인상 부담 속
신선식품 강화 등 질적 개선 효과

기 대비 11.1% 증가했으며 GS25(GS리테일) 역시 매출이 1조4792억 원으로 7% 늘었다.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CU는 278억 원으로 29%나 감소했으며 GS리테일은 199억 원으로 37.2% 줄었다. 업계 성장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지원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

이에 업계는 서비스 차별화와 편의 확대,

매출 성장세가 큰 신선·즉석식품 강화 등 점포당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질적 개선에 힘을 쏟는 한편 출점 경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성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로 CU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5165억 원, 588억 원, GS25는 각각 1조7000억 원대 전후, 500억 원대 전후로 1분기에 비해 역성장 폭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증권 서정연 연구원은 "업황에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있지만 기존점 매출 신장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생비용은 1분기와 4분기에 매출액이 가장 큰 편"이라며 "이를 상쇄할 만한 판촉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국산화 혈액제제·백신 내세워 세계시장 노크

R&D 톨아보기 GC녹십자

GC녹십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3년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B형간염 백신 '해파박스-B' 개발에 성공하며 '백신 주권'을 실현했으며, 2009년에는 계절 독감백신 '지씨플루'를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독감백신을 국산화했다. 또 2012년에는 희귀의약품인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를 전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는 주력 부문인 혈액 제제와 백신을 비롯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바이오신약, 바이오배터, 합성신약까지 외형을 확대한 수십여 개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GC녹십자는 올해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아이비글로블린 에스엔(IVIG-SN)'의 북미 시장 진출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IVIG-SN은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녹십자의 대표 혈액제제 중 하나다. 2015년 11월 임상3상을 완료하고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 막바지에 접어들어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IVIG-SN의 FDA 품목 허가 신청과 함께 지난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100만 ℓ 생산 규모의 혈액분획제제 공장도 세웠다. 202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현재 시험 생산 중이며, 캐나다 정부와 현지 구매기관에 생산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계

GC녹십자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임상 착수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혈액제제	알부민, 면역글로블린, 혈우병 치료제, 피브리노겐, PCC	-	탄저백신	면역결핍 치료제
백신	대상포진백신, 소아용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노인용 고용량 4가 독감백신, 결핵백신,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차세대 수두백신, 영유아 4가 독감백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헌터증후군치료제(자가투여), 혈우병치료제A, 혈우병치료제(B인자중립제), 면역관문억제제	표적항암제	헌터증후군치료제(뇌실투여), 헌터증후군치료제(정맥투여), B형간염면역글로블린(만성간염치료)	혈우병치료제, B형간염면역글로블린(간염재발방지), 헌터증후군치료제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美 FDA 연내 허가 착적...캐나다 공장 설립 프리미엄 대상포진백신 'CRV-101' 美 임상 착수 등 해외진출 본격화 국내 첫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 개발 등 국산화 쟁점

약 체결도 마쳤다.

주력 분야인 백신 사업에서는 2015년 국내 첫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 개발에 성공하며 백신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원 함량이 일반 독감백신보다 높은 고용량 독감백신 개발(임상 1상 진행 중)에 나서며 백신 시장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 백신은 특히 고령층에 효과적이어서 개발에 성공하면 독감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C녹십자는 올해 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성인용 Td백신의 국내 병·의원 공급도 시작했다. Td백신은 디프테리아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에 의한 신경 독소로 발생하는 '파상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회사 측은 "현재 국내 허가된 '성인용 Td 백신' 3종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라며 "이

번 Td백신 국산화로 매년 45만 명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신규 법인 '큐레보(CUREVO)'를 설립하고 차세대 백신인 프리미엄 대상포진 백신 'CRV-101(GC녹십자 프로젝트명: 'MG1120')'의 미국 내 임상 착수했다. 그간 필수 기초 백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온 GC녹십자가 성인 대상의 고가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전자재조합 제제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출시된 '헌터라제'가 미국·일본 임상2상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국가에도 진출해 있다. 혈우병치료제 '그린진 에프'는 중국 진출을 위한 임상에 돌입한 상태다.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 '해파박-진(GC1102)'도 기대를 모으는 의약품

이다. 그동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등 개발에 주로 쓰였으며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에 적용된 사례는 해파박-진이 처음이다. 올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3상 임상 중이다.

현재 GC녹십자는 약효 지속 시간을 크게 늘린 차세대 장기지속형 혈우병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이미 기존 약물보다 1.5~1.7배 약효 시간을 늘린 혈우병치료제가 시판되고 있지만 GC녹십자는 이보다 2배 더 지속 시간이 긴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신약 후보는 지난해 말 열린 '제59회 미국 혈액학회'에서 연구 데이터가 공개돼 다국적 제약사들과 미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항암바이오신약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GC녹십자는 올해 4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표적항암제 'GC1118'의 임상 1b상과 2a상을 위한 환자 투여에 돌입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대장암과 함께 위암 등으로 적응증을 넓혀갈 예정"이라며 "이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건강한 픽템

대용제약 '코메키나'

환절기 알레르기 졸음 걱정없이 재채기·콧물 안녕

메퀴타진 성분 복합비염치료제
항히스타민 졸음 부작용 최소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심한 재채기, 콧물 등을 유발하는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은 항히스타민제인데, 위장장애는 물론 극심한 졸음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대용제약이 4일 출시한 '코메키나'는 졸음 부작용을 줄인 메퀴타진 성분의 일반의약품 복합비염치료제다. 이 제품은 기존 항히스타민 복합제에 주로 사용되던 클로르페니라민, 디펜히드라민 등의 항히스타민 성분 대비 졸음 부작용이 덜한 메퀴타진을 주성분으로 하면서 무수카페인을 추가해 비염치료제



대용제약 알레르기 비염약 '코메키나'.

의 졸음 유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슈도에페드린, 벨라돈나, 글리시리진산이 들어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 코감기 같은 비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송하나 대용제약 코메키나 PM은 "올해 매출 10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국내 비염약 1등 브랜드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몇 년간 광고 없이 발매 첫해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경우 비염약 제품은 없었던 만큼 올해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전문조사기관은 IMS 데이터 기준 일반의약품 경구용 비염약 시장은 약 200억 원 규모로, 대용제약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했던 니즈를 공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단기간 내에 국내 비염약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항암 분야 올림픽서 저력 뽐낸 'K-바이오'

바이오 줌인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등 미 임상 중앙학회서 개발 신약 공개 '침체' 바이오산업 분위기 반전 기대

미국 사카고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2018 미국 임상 종양학회(ASCO)'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K-바이오'의 저력을 뽐냈다.

매년 암 전문의와 제약업체 관계자 4만여 명이 참가하는 '항암 분야 올림픽'에서 기술 수출이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신약 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등으로 침체된 제약·바이오산업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신라젠, 한울바이오파마, 테라젠이텍스의 자회사 메드팩토 등이 나서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결과 등을 발표했다. 우선 유한양행은 3일(현지시간) 오전 포스터 세션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YH25448(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임상 1·2상 중간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저해제(EGFR-TKI)로 치료를 받았지만 내성이 생긴 국소 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용량의 YH25448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포스터 발표에 따르면 YH25448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는 60% 이상의 높은 반응률과 낮은 부

작용을 나타내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미약품도 유한양행과 같은 날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임상결과가 게시된 것은 아니지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기엔 충분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포지오티닙은 2015년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한 폐암 신약 물질로, 엑손(econ) 유전자 돌연변이로 'EGFR' 억제제가 효과가 없는 암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학회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3(성분명: 트라스투주맵)'의 투약 완료 후 1년 추적 임상결과를 공개했다. SB3(유럽명: 온트루잔트, 한국명: 삼페

넷)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초기 및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SB3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허셉틴' 투약 완료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 결과 모두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24개월을 기준으로 치료 후 일정 기간 심각한 부작용이나 암 재발, 전이, 사망 등이 일어나지 않은 '무사건 생존율(EFS:Event Free Survival)'은 SB3 투약군이 96.7%, 허셉틴 투약군이 94.3%였다.

김철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과학본부장은 "이번 추적 임상시험을 통해 SB3의 생존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라젠은 고형암 환자에 대한 수술 전 '펙사백(JX-594)' 투여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공개했으며,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의 초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추가 임상결과를 포스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광고심의필 : 2017-1415-3800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길~어서 좋고, 오~래가서 좋은 강력한 관절통·근육통 치료제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7cm X 15cm의 긴 사이즈
4방향 신축성



24시간 약효 지속

7cm X 15cm의 긴 사이즈 손목, 발목 등 굴곡진 부위에 붙이기 적합합니다
관절통, 근육통에 강력한 효과 로스프로렌나트륨 수화물 85.05mg 고효율
4방향 신축성 제품 원단이 4방향으로 신축성이 있어 활동성이 좋습니다
24시간 약효의 지속성 24시간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됩니다

(원료약품의 분량) 1매 중 (7.06cm X 15.0cm, 105㎡, 4.2g) 로스프로렌나트륨수화물(NP) 85.05mg
(성상) 무색 내지 담황색의 특이한 냄새가 있는 점착성 물질을 지지체에 도포하고 고체로써 박리지를 얹은 침투제
(효능·효과)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소염항염 :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근육통, 외상성치 후의 통증(부기), 통증
(용법·용량) 1일 1회 1매 환부(질환부위)에 부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 제일헬스사이언스(주) 080-549-0002 www.jeilhs.co.kr 일반의약품

하나금융그룹

1등의 조건

게임을 리드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과로 말해야 한다

올바른 미래예측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은퇴설계의 명가

☺ KEB 하나은행

연금은 하나! KEB하나은행 연금

- TDF 판매 은행권 **1위**
(2018년 3월 말기준, 출처: 금융투자협회)
- 개인연금펀드 판매 은행권 **1위**
(2018년 3월 말기준, 출처: 금융투자협회)
-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형 은행권 수익률 **1위**
(시중은행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상품 과거 5년(2013~2017), 9년(2009~2017) 수익률,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업내내 비교공시)
- 은퇴설계전문가자격(ARPS) 보유자 수 **1위**
(4,996명, 2018년 4월 말기준, 출처: 한국 FPSB)

연금과 절세를 함께 누리는 KEB하나은행 IRP

- 은퇴 준비는 물론, 연말정산까지 해결하는 금융 솔루션
 -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최대 1,155,000원까지 절세 혜택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 IRP는 퇴직 시 수행한 퇴직 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다소득세 (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2311호(2018.5.29)

임대 후 분양 전환이나, 후분양이나 '나인원 한남' 분양방식 결정 초읽기

대신F&I, 두 방식 리스크 저울질

분양가 책정을 놓고 진통을 겪은 나인원 한남의 분양 방식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증권 계열의 대신에프앤아이(F&I)는 이번 주에 사업의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지난달 21일에서 보름가량 늦어진 것이다.

대신 측은 나인원 한남의 선분양 추진 과정에서 3.3㎡당 평균 분양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측은 6360만 원, HUG 측은 상한선 4750만 원을 각각 내세웠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대신 측은 선분양을 분양 방식에서 제외하고 임대 후 분양 전환, 후분양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방식 결정이 지연되면서 대신 측은 우선 기존 차입금을 브릿지론으로 상환했다. 지난해 NH투자증권 등 대주단을 통해 빌린 9000억 원 가운데 사용한

6100억 원을 브릿지론으로 상환한 것이다. 브릿지론은 기존 대주단에 속했던 NH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차입 기간은 6개월, 금리는 4.5~5% 수준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차입금 금리 수준은 4~6%대였다.

대신 측은 임대 후 분양 전환, 후분양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은 4년 임대 후, HUG의 승인 없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4년 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그 시점에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 보장이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후분양은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후분양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을 담고 있다. 대신 측은 분양 방식을 후분양 로드맵 발표 이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수익성을 논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분양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역시 역세권”...청약도 매매도 강세

교통·생활 인프라에 희소성까지 경쟁률 톱10 모두 1km 거리내 驛 매매가 비역세권과 1억 가까이 쟁

역세권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보증수표로 불렸다. 이들 지역의 경우 통학·등교 등 생활의 질이 올라가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만큼 생활 여건도 좋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역세권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경우 청약시장에서나 매매시장에서 우위를 보였다.

5일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최근 1년 사이에 청약한 수도권 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10위까지의 단지를 살펴본 결과 10개 단지 모두 반경 1km 거리 내에 역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들어서는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청약경쟁률 168.08대 1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인천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가까운 '송도 SK VIEW Central'이 123.76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뒤를 이어 △동탄역 에미지 3차(SRT 동탄역)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9호선 당산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동탄역 롯데캐슬(SRT 동탄역)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5호선 개봉역·오금역) 순으로 상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역세권 단지의 인기 요인은 주거의 편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경우 단선

최근 1년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출처: 아파트투유, 리얼투데이 (조사일: 2018년 5월 29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	전체경쟁률	반경 1km 내 역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	168.08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 VIEW Central	123.76	인천대입구역
경기	화성시	동탄1동	동탄2 C7블록 동탄역 에미지 3차	106.81	동탄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79.9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경기	화성시	동탄1동	동탄역 롯데캐슬	77.54	동탄역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72.84	개롱역, 오금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56.87	신봉역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49.98	이대역, 애오개역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40.78	구룡역, 매봉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39.59	성북역

하게 교통 이용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상권이 발달하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져 주거하기에 좋다. 이에 인구가 같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도 높아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역세권과 비역세권 단지의 가격은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400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 '현진에비빌' (2007년 입주·경기 안양시 석수동)의 전용면적 79㎡ 평균 매매가는 3억8500만 원이다. 반면에 '현진에비빌'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고, 같은 동네에 위치하지만 역과 다소 거리가 먼 '동신벨로스' (2007년 입주·경기 안양시 석수동)는 전용면적 82㎡ 매매가가 3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하는 단지 중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보로 역 이용이 가능하고, 역 주변 상권도 두루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단지는 희소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에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 일대에 '꿈의숲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인접해 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사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이 수월하다. 또한 두산건설도 이달 중 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어정역이 인접해 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번지 일원에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하고 롯데건설은 6월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예정)과 과장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김포한강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강남·북 아파트값 상승률 역전

강북 14개 아파트값 상승률 3개월 연속 강남 11개구 앞질러

지속적인 규제...알짜지역 중심 활기

강남 '위축'·강북 '약진' 엇갈린 모습

최근 몇 달간 강북의 집값 상승률이 강남을 넘어섰다.

5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강북과 강남 간 상승세의 첫 역전이 일어난 것은 올해 3월경부터였다. 3월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92%,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00%로 강북 지역이 0.08%p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월에만 해도 강남과 강북의 상승률이 각각 2.91%, 1.27%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양 지역 간 상승률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0.32%p, 0.28%p로 지속적으로 강북의 상승세가 강

남을 상회했다.

이는 지속적인 규제에 의한 강남 시장의 위축과 알짜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강북 시장의 약진으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강동(-0.15%), 송파(-0.15%), 강남(-0.14%), 서초(-0.04%) 등 강남 4구는 모두 일관되게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강북에서는 서대문구(2.06%), 성북구(1.81%), 마포구(1.77%) 등 평상시에 뚜렷한 상승세가 관측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례적인 상승세가 관측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도 강북의 신흥 부촌인 마포(11.89%), 용산(8.14%), 성동(8.14%) 등 이른바 '마·용·성'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은 강남에서 강북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용 기자 cogit@

마포구 중위가격 첫 7억대 진입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6억6169만원

강남·서초·송파·용산·광진 이어 6번째

지주근접 수요...단지별로 고르게 상승

서울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뒤늦게 발돋움한 마포구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사상 처음 7억 원대에 진입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의 지난달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7억 원으로 전월(6억9500만 원)보다 500만 원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마포 이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7억 원을 돌파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광진 뿐이다. 통계 작성 이전부터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넘었던 강남과 서초를 제외하면 송파는 조정을 받고 2014년 7월 중위가격 7억 원 선을 회복했다. 용산은 지난해 4월, 광진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7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강남은 13억4000만 원, 서초는 12억4250만 원, 송파는 10억9750만 원, 용산은 9억5500만 원, 광진은 7억4400만 원에 중위가격이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상승세에 가속이 붙은 마포는 12월 처음 서울의 중위가격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의 중위가격은 6억6169만 원이다.

실제 마포에서 전용면적 85㎡로 7억 원대에 시세

서울·마포구 중위매매가격 추이 (단위: 만 원)

※출처: 한국감정원



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상암동의 월드컵파크9단지, 도화동의 현대소양·현대홈타운 등이다. 전용 59㎡로 7억 원대 시세는 신공덕동의 래미안2·3차, 공덕동 래미안1차 등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들은 올해 들어 7억 원대 시세에 진입했다. 상암동 월드컵파크9단지 전용 85㎡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 원에 팔리던 것이 올해 4월에는 6억9500만 원에 팔렸다. 신공덕동 래미안3차는 전용 59㎡가 4월에 7억4000만 원에 거래돼 5개월 전보다 1억1000만 원 웃돈이 붙었다.

공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직장과 가까운 곳을 집으로 택하는 수요가 커져 마포가 각광받는다고"며 "아파트 단지가 신축 여부 외에는 비교적 균질한 편이라 가격이 고루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Vitamin the House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 중독에 답하다

애플이 4일(현지시간) 자사 연례 개발자회의인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할 대책을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제이에서 열린 'WWDC 2018'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고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중독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앱이 주요 원인이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스마트폰의 선구자'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애플에도 대책을 요구하자 이에 답한 것이라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풀이했다.

애플은 올해 말 내놓을 iOS 12에 적용할 '앱 리미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다. 사용자가 앱별로 1일 이용시간을 설정하게 하고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와 앱 이용시간을 통보해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다. 각 앱의 사용 제한 시간에 도달하면 이용자에게 주의를 준다. 애플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하루 한 시간으로 설정했다면 55분간 앱을 사용했을 때 '5분 남았다'는 경고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앱을 더 이용하려면 연장 버튼을 눌러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에 시간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시간을 '다운타임'으로 설정하면 스마트폰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쓸 수 있는 도구다.

'스크린타임' 기능은 1주일에 아이폰을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어떤 앱의 이용 빈도가 높은지도 분석해 알려준다.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파

새 운영체제 iOS12 공개

'앱 리미츠' 기능 넣어 연말께 출시
앱마다 1일 사용시간 및 종료 설정
이날 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 찍어
6% 더 오르면 '꿈의 시총' 1조 달러



악할 수 있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 부사장은 WWDC에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발표했다"면서 "당신이 매일 스마트 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기존에도 자녀가 사용하는 앱 종류를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그러나 1월 애플 주식을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펀드 자나파트너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직원 퇴직연금 캘스 타스(CalSTRS)가 공개서한을 통해 애플의 조치

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애플 기기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도 보급됐다"면서 "애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애플은 자사 광고에서 아이패드 앱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탐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묘사해왔으며 200만 개 앱을 보유하고 지난해 425억 달러(약 45조4750억 원)의 앱스토어 수익을 올렸으면서 애플이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애플은 iOS 12에 포함될 새로운 기능들도 발표했다.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이모지를 만들 수 있는 '미모지(Memoji)'와 발전된 증강현실(AR)을 내놓았다. 시리는 사용자가 설정한 한 단어 명령어를 통해 간결하게 작동하도록 했다. 사파리 브라우저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WWDC 개막에 힘입어 애플 주가는 0.8% 오른 191.8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193.42달러까지 치솟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주가 상승으로 애플 시가총액은 94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주가가 6.1% 더 오르면 세계 최초로 '꿈의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애플 주가는 24% 상승했으며 3개월 사이 8% 이상 올랐다.

이날 애플과 함께 아마존의 주가도 1.5% 오른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52.13포인트(0.69%) 상승한 7606.46에 거래를 마쳤다. 이주혜 기자 winjh@

동남아 '공유택시 독점기업' 탄생하나

인도네시아만 장악 못한 '그랩'

3월 우버 동남아 사업부 사들여

인니 토종앱 '고젝' 앞지를 전망

인도네시아 차량공유앱 이용자 점유율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차량공유 업계의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싱가포르 그랩이 우버를 등에 업고 인도네시아 대표 차량공유업체 고젝을 뛰어넘어 '1강'에 등극할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랩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젝을 추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량공유 앱이 택시 대신 운송업을 장악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교통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 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고젝이 45.5%, 그랩이 45.1%, 우버가 9.4%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인 고젝이 우세하지만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흡수한 것을 고려하면 그랩이 고젝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강' 체제였던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에서 그랩이 1강에 등극한다는 의미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버는 동남아 사업부를 그랩에 매각하기로 3월에 합의했다. 당시 앤서니 탄 그랩 최고경영자(CEO)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통합하면 라이벌과 압도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버 사업의 인수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사업 통합을 단순한 '더하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도네시아 배차 앱 이용자의 40%가 그랩과 고젝 두 업체를 모두 이용해서다. 할인이나 대기 시간 등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식이다. 우버를 이용하던 사람이 모두 그랩을 이용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버 운전기사들이 그랩으로 100%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랩 인도네시아 법인은 우버 기사

들에게 "여러분의 생계를 배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랩에 재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기사들의 반발을 샀다. 우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자 우버 기사였던 아니스는 그랩이 아니라 고젝에 등록했다. 그는 "고젝 택배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일을 구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젝이 소폭 앞섰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랩의 독점이 가까운 상황이다. 이미 동남아를 석권한 그랩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로 버티고 있는 고젝이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젝은 지난달 24일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4개국에 진출하며 이를 위해 5억 달러(약 5359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고젝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나디엠 마카림 고젝 창업자 겸 CEO는 우버의 이탈로 그랩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상황을 비판하며 그랩의 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차량뿐만 아니라 택배와 금융, 콘텐츠 등 사업을 확장 중인 두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고젝의 해외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후발 주자인 고젝도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과테말라 화산폭발 사망자 62명으로 늘어



과테말라에서 푸에고 화산이 4일(현지시간) 이틀째 폭발해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62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산후안 알로테나고에 설치된 화산 폭발 사망자 분향소에서 소년이 울고 있다. 산후안 알로테나고/AP연합뉴스

IT공룡에 의해...스타트업 '킬존' 만들어지는 3가지 이유

- 1 정보 부족해 유망사업 뺏기고
- 2 인재 유출에 영입도 어려워
- 3 시장 바뀔 새 플랫폼은 아직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 거대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이제 스타트업 시장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시대에 진입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되고 있지만 모두가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들의 자금력과 플랫폼 장악력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스타트업의 '킬존(Kill Zone)'을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타트업이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을 '킬존'이라고 표현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들이 온라인 검색과 메신저,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틈이 적어지자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킬존 형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킬존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대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다. 구글은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해 사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유망 사업을 파악하고 경쟁 스타트업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시장 정보를 얻는 방식은 또 있다. 바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파악하고 혁신기업의 등장을 예견하는 것이다. 특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공들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6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를 투입했다.

킬존을 구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대기업들의 인재 유치 능력이다. 그들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는 지난해 스톡옵션에 총 237억 달러를 투입했다. 대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묶어두 수 있지만,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인재 영입조차 힘들다.

마이크 볼프 인덱스벤처스 파트너는 "인덱스벤처스의 포트폴리오에 올라 와 있는 스타트업들은 최근 연간 고용 목표의 10~2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장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도 킬존 형성의 원인 중 하나다. 1990년대 MS의 독주를 막았던 것은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이었으나 그 뒤로 10년이 넘게 이렇다 할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대기업들이 새로운 앱과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비용을 내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영불보단 잭팟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제이 로얀 미스랄과피탈라카지먼트 공동 창업자는 "스타트업의 90%가 성장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인수되고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abc1994@

글로벌 에너지기업, 실리콘밸리서 길 찾다

스페인 랩솔 정유단지 구글AI 도입
최적의 공정 찾아 비용 절감 효과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이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충격 이후 첨단 IT 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경영 효율화 제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최대 정유업체 랩솔은 구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자사 정유단지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마진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업계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FT는 설명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탈피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전통적인 에너지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수익성이 더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랩솔은 바르셀로나 인근의 스페인 동부 해안에 있는 타라고나 정유단지의 생산 최적화를 위해 구글의 AI 기계학습 도구인 '클라우드ML'을 사용하고 있다.

타라고나 정유단지의 생산 규모는 하루 12만 배럴에 이른다. 정유공장은 원유를 휘발유와 경유 등 더욱 가치 있는 연료로 가공하기 위해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하는 장치 등 다양한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구글 기술은 정유소의 각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압력과 온도, 유량, 처리 속도 등 수백 가지 변수와 관련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랩솔은 이를 통해 배럴당 30센트(약 320원)의 마진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5개 정유단지에도 구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업들은 랩솔처럼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에 있는 랩솔의 정유단지 야경. 타라고나/AP뉴스

는 도구를 폭넓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IT 기술은 굴착장비의 성능을 향상하고 정유소 수익성을 높이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동안 석유와 가스 업체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최대한도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갖지 못했다"며 "분석 도구와 기술들이 빠르고 폭넓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랩솔은 1분기 5억5800만 유로(약 6987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6억6300만 유로에서 줄어든 것으로, 부분적으로 유가 상승에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랩솔은 AI를 정유사업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면 다운스트림(원유 정제에서 수송, 정제와 판매에 이르는 과정) 부문에서 연간 1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마리아 빅토리아 징고니 랩솔 다운스트림 부문 대표는 "AI는 현재 정유공장의 약 30가지 변수에만 쓰이고 있지만 곧 400개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회적금융, 장기 로드맵이 없다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기조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다. 금융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재원을 공급하고,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함께하면서,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이 사회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진전된 정책 목표이다.

정부는 2월 포용적 금융의 실행 방안의 하나로 사회투자기금 설립,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준,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사회적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으로, 포용 금융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새로운 금융의 영역이다. 자본과 사업가 정신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사회적 금융은 상업 금융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식 제시 등을 필요로 한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수요자의 문화와 눈높이를 감안해 수행되는 금융이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경제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왔고 '주는' 복지를 넘어서 '사회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 금융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만큼 쉽지 않은 제

도이다. 그러기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회적 금융 추진 정책에서는 장기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투자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BSC' (Big Society Capital)는 12년의 연구 끝에 탄생하였다. 영국에서 2000년 4월 사회 투자 조성을 위한 '소셜 인베스트먼트 태스크포스' (Social Investment Task Force)가 설치되고 12년 동안의 신중한 실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휴먼예금을 활용한 BSC가 만들어졌다.

노동당 정부가 시작하고 보수당이 완성하였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BSC로 결실을 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BS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소셜 뱅크,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금융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을 빼앗는다고?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 모녀의 갑질과 폭행에다 조 회장 아들 조원태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 탈세와 밀수 혐의까지 겹쳐 '조갑질 일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한항공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병으로 타계한 구본무 LG 회장의 바른 심성과 소통경영이 알려져 대비되자 '대한항공을 (뺏어서) LG에 주자'는 말까지 나왔다.

민간 사기업에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빼앗으려는 음모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오너일가 퇴진을 주장하는 대한항공직원원 대를 민노총이 조종하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정권 차원에서는 예전 김대중 정권과의 악연으로 인해 현 정부와도 원활한 관계가 아닐 것이므로 대한항공 탈취 시도가 있다면 방조 또는 방관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음모설 중 고약한 것은 중국공산당 배후

설이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항공 운송 회사가 아니라 우리 국군 항공전력의 최전선 정비장이며 복합 방위산업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넘어가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 넘어가더라도 군사부분만큼은 꼭 분리해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조직적 공격은 단순히 갑질 을질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묘한 것은 음모론에 대한 시각이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이 대립할 때처럼 두 쪽으로 갈리는 점이다. 대한항공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기업과 재벌 전반에 대한 시각차로 커지고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조양호 회장이다. 자신의 거취와 새로운 기업경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영권을 통째로 내놓고 물러가려는 것은 온당한 요구가 아니다.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맞다. 소유와 경영의 합리적 분리 방안을 찾는 게 좋다고 본다.

지난달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한화는 준비

경영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누가 위원회를 맡느냐, 위원회에 대해 오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지만 윤리 경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척이다. 조 회장의 경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의 의장으로의 역할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도 누구를 새로운 경영자로 선임해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창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 대목에 중지(衆智)가 필요하다.

조 회장은 1999년 취임 이후 매출을 2배 이상, 영업이익을 50배 가까이 늘렸을 만큼 경영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실적이며 그가 아니면 불가능했을까.

2019년은 대한항공 창립 50년, 조 회장 취임 20년이 되는 해다. 새로 태어나는 해로 삼을 만하다. 이제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경영권 승계도 어려워진다.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업계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한항공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fusedtree@

알쏭달쏭

관상(觀相)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중에는 더러 입후보자의 학력, 경력, 공약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그냥 현수막에 붙은 사진의 관상을 보고 찍겠다는 사람이 있다. 안 될 말이다. 관상보다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물론, 지방선거는 그 지역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지역을 위한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관상은 '觀相'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볼 관', '서로 상'이라고 훈독한다. '相'은 '나무(木)'와 '눈(目)'이 합쳐진 글자이다. 원시 시대에 생활도구를 만드는 재료는 대부분 나무였다. 눈[目]으로 나무[木]를 잘 살펴 선택하는 것은 양질의 생활도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무를 잘못 선택하면 애써 깎아 만든 도구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目'과 '木'의 합성자인 相은 본래 '잘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태어난 글자다.

이것이 점차 잘 살펴야 할 대상인 나무의 재질과 바탕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고, 그 뜻이 다시 사람에게로도 확대되어 골격, 얼굴, 피부색 등 사람의 바탕과 용모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관상은 '사람의 바탕인 얼굴이나 체격, 피부색 등을 보고서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관상은 일종의 통계라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상에만 의지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불꽃페미 상의 탈의 시위, 수사는 면했지만... "여자든 남자든 공연음란죄"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불꽃페미액션 소속 10명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연 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으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노출 부위와 그 방식 등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2일 오후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성의 반라 시위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 규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시위 다음 날 사과하며 게시물을 복원했다.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은 분분하다. 네티버 아이디 'zipn****'는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시위에 전

적으로 공감한다"라고, 'gpwl****'는 "몸에 대해 남녀차별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동조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kdc0****'은 "남성과 여성은 원래 서로 성적 대상인데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성적으로 보지 말라니"라고, 'ksw0****'은 "가슴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탈의한 채 돌아다니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네티버 아이디 'fcxx****'은 "의도를 알겠고,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하지만 꼭 옷을 벗어야 했을까"라며 시위 방식을 꼬집었다. 네티버 아이디 'rate****'은 "남성도 하반신 탈의하면 음란물로 걸린다. 불꽃페미액션은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ijay0403@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옛보기 방지기능**
비밀번호 앞/뒤에 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침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추는 기능
- 저전압 알리기능**
건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 지문인식
- 터치패드
- 내화성능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우태학의 통상 브리핑



연세대 특임교수
前 산업통상자원부2차관

거북이와 토끼 FTA 협상

5월 2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입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를 상무부에 지시했다. 일반 긴급수입제한(SG) 조치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각각 25%, 10% 관세가 일괄 부과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가 수입차에도 철강과 같이 최고 25%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업계, 의회는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이번 조사가 위급한 통상협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연초부터 대미 통상 마찰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긴급수입제한 관세가 부과된 태양광패널(1.6%), 세탁기(0.5%)와 철강(2.8%) 등 3개 품목의 대미 수출을 모두 합하면 작년 기준 33억 달러로 대미 수출 비중은 5%였다. 반면 자동차(21.4%)와 부품(8.3%)은 작년 수출 203억 달러를 기록한 대미 수출 1, 2위 주력 수출 품목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30%에 이른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에 제정되었으나, 1979년(이란)과 1982년(리비아) 원유 수입금지 조치 때 두 차례 활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트럼프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면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더 치명타를 맞게 된다.

철강의 경우 다행히 우리나라는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았다. 그 대신 제1차 세계 대전 전부터 전년대비 70%로 정해 수출 자율규제를 약속했고, 한미 FTA 개

정협상은 3개월 만에 원칙적인 합의에도 달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작년 8월 첫 협상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핵심 쟁점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올해 3월, 5월 17일 등 세 번이나 협상 시한을 정했으나, 모두 수포가 되었다.

최대 쟁점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으로, 현재 62.5%인 소형차 부품 비중을 4년 뒤 75%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입차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가 11월 중간선까지 이전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철강 관세(25%) 부과 여부를 NAFTA 재협상 조기 타결과 연계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꿈쩍하지 않자 자동차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협상이 연내 타결된다면 미 의회 처리 지연으로 비준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

다.

아직 협상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은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자는 거북이처럼 10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하여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반면, 후자는 철강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토끼처럼 뛰어나다며 허둥지둥 매달리는 형국(形局)이다.

조기협상 타결로 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수입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가 주 타깃이 될 것이고, 과연 자동차도 철강처럼 동맹국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숙제이다.

철강은 한미 FTA 개정협상 조기 타결을 지렛대로 예외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자동차는 무슨 카드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전민정의 인사이드
산업2부 차장



‘독고다이’ 블록체인 정책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는 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선 법인 계좌도 내주지 않고, 핀테크가 대세인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블록체인’마저 규제의 뒷에 갇혀 신산업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 블록체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벤처캐피탈(VC)의 투자도 쉽지 않다. 자금줄이 막혀버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업체들은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코인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은 코인 지급을 통한 ‘보상 체계’가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하루빨리 ‘암호화폐 제도화’에 나서 블록체인 기업들의 거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인 ICO를 허용하는 길 밖에 없다는 주장은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명제가 된 듯하다.

이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의 타이밍을 한참 늦췄다는 지적도 많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실명거래제 도입 등을 통해 광풍만 잠재웠을 뿐,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팀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조차 못 잡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을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경제적인 무형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제도화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크게 어긋난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골드만삭스와 나스닥, 시카고선물거래소 등이 투자하는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사설 도박장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규제 정책이 있어서도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되 화폐나 상품, 결제 수단으로는 인정하고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 지침이 되는 ‘표준규제체계’를 마련했으며, 스위스의 경우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암호화폐 지역까지 지정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강하다는 일본조차 공적 결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G20 등 국제적인 암호화폐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암호화폐의 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동참하고 국내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객석

이 용 진 용인문정중학교 국어교사



인생의 사춘기

인생의 사춘기는 몇 번이나 올까. 두산 백과사전과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사춘기(period of puberty, 思春期)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를 뜻한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이차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두게 되고 춘정(春情)을 느끼게 된다. 청년 초기로, 보통 15~20세를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사춘기가 자주 오는 것 같다. 우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열 살 사춘기가 있고, 학교에는 열여섯 살 사춘기가 있고, 나에게는 40대 사춘기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중학생 열여섯 살이 사춘기가 맞다. 그런데 초등학교생에게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사춘기는 있다.

열 살 사춘기는 방향성이 없다. 일관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즉흥적이며 감정적이다. 마치 럭비공 같다. 금강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열 살 아이가 다섯 살 동생에게 하는 말이나 행

동은 부모의 모습과 판박이다. 아이들을 보면서 자주 반성한다.

사전적인 의미에 딱 맞는 중학교 사춘기는 시간이 약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일정한 패턴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열여섯 살 남자 사춘기는 비교적 단순하고 능동적이기에 다스리기 편하다. 먹을 것, 친구, 게임, 축구 등 원하는 한 가지만 충족되면 쉽게 정리된다.

열여섯 살 여자 사춘기는 다양한 양상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에게 몰입하거나, 외모에 신경 쓰거나, 세상과 학교를 싫어한다. 열여섯 살 여자 사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약이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른들도 사춘기를 겪는다. 몸이 아프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매일 하던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어떤 사춘기가 가장 무서울까? 어떻게 해결할까? 모두 무섭고 시간이 약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가장 나이 많은 40대 사춘기가 힘을 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를 달래 본다.

기자수첩

박 미 선 사회경제부/only@



운명을 거래한 판사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자 법정 경위는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안내했다. 피고인은 방정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 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 “아들,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다. 누군가 “항소 기각됐습니다”라고 말하자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폭 쓰러졌다. 법정 경위는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아들의 선고 결과를 제자 물었고, 항소가 기각됐다는 말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은 늘 긴장감이 감돈다.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판장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눈을 떼지 못한다. 한 번 백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던 선고가 끝난 뒤 “한 번만 봐 달라”며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보며 숨죽여 우는 사람도 있다.

법정 내 선고 풍경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뿐 아니라 피고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짓는다’고 새삼 느낀다. 이 느낌은 금세 서늘함으로 바뀌었다. 사법부가 타인의 운명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재판 15건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받은 임금을 토해내야 했던, KTX 승무원 판결도 있었다. 운명을 거래한 이 판결로 누군가는 삶을 비관한다 목숨을 끊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기자가 만난 대개의 법원은 판결을 신성시했다.

타인의 운명을 거래한 의혹의 중심에 선 사법부가 법원의 판단을 그 자체로 존중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법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 운명을 거래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지만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

1

깊은 잠을 부르는
15가지 방법

2

상쾌하게 일어나는
8가지 방법

3

수면 유형별로
기본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수면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책에 귀 기울이세요!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가짜부터 나오후미 지음 / 조은아역 / 224쪽 / 13,800원 / 북이아트

BOOK-AGIT 북-아깃

사내 안전교육서 배운 CPR로 생명 구해

〈심폐소생술〉

‘퇴근길 영웅’ 신태현·이성동 SK하이닉스 책임

‘어벤져스, 영웅, 의인.’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신태현, 이성동 책임에게 붙은 새로운 별칭이다. 이들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진 중년여성을 심폐소생술(CPR)로 살려내 언론과 사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현장을 마주하게 된 건 4월 23일 오후 7시경 퇴근길 지하철역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두 사람 눈앞으로 쓰러졌다. 이를 본 이성동 책임은 큰소리로 응급 상황을 알렸다. 주위 시민들의 119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신태현 책임은 여성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자 곧바로 CPR를 시작했다. 1차 30회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서둘러 2차 CPR를 시작하려던 찰나, 이 여성은 ‘억’하고 작은 신음을 토해내며 의식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지하철 객차 안 SOS 전화로 역무원을 호출했다. 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넘겼다.

두 사람은 SK하이닉스 사내 안전교육 덕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SK하이닉스는 ‘안전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신념으로 SHE

비상시스템 ‘SHE’ 교육 이수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안전 중요성 알려지는 계기로 CPR, 타인 살리는 배움이죠

(Safety·Health·Environment, 안전보건환경)라는 비상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약 350억 원 출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책임은 팀 내 SHE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신 책임은 지난 해 사내 CPR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사 정책상 특별로 반드시 CPR 전문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8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데 유아 심폐소생술, 생활 응급처치 요령, 하임리히법 등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영웅으로 거듭난 신 책임과 이 책임이지만, 그 공은 서로에게 돌리는 훈훈한 모습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긴급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이성동 책임(왼쪽), 신태현 책임(오른쪽)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진 중년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며 언론과 사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대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친구이자 동료인 서로를 지목한다. 이들은 “만약 혼자였다면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동료와 함께 있었기에 용기가 났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한다. CPR 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졌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많은 종류의 배움이 있고, 대부분의 배움은 나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CPR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PR는 나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배움입니다.” 퇴근길의 평범한 영웅들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권태성 기자 tskwo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우 정우성 특별전 연다

비트·강철비 등 12편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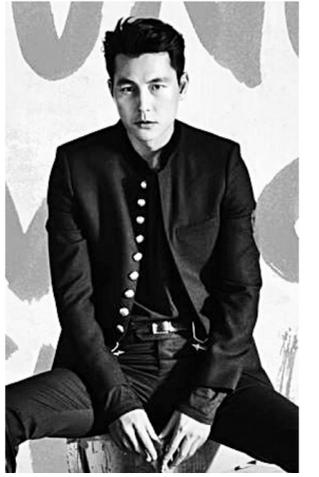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는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사진)’을 타이틀로 배우 정우성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BIFAN에서는 지난해 전도연 배우의 특별전에 이어, 한국영화와 함께 성장해 왔고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시대 영화인들을 만나는 두 번째 시리즈로 정우성의 영화 세계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우성은 1994년 데뷔해 현재까지 30편에 이르는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배우로, 제작자로 그리고 감독으로 종합무선 활동하며 한국영화의 불변 아이콘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비트’와 ‘태양은 없다’, ‘아수라’와 ‘강철비’까지 12편의 대표작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통해 그의 수많은 변화의 순간들과 그를 통해 빛어낸 한국영화의 빛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BIFAN은 밝혔다.

영화 상영과 함께 관객들과 직접 만나



는 시간은 물론 국내 최고의 평론가들이 참여한 기법 책자와 기자회견, 정우성 출연작의 주제곡이 포함된 OST 콘서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정우성 특별전은 7월 12~22일 개최되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에 만나볼 수 있다.

기정아 기자 jionga1006@

삼성전자 첫 CIO에 데이비드 은 임명

혁신 총괄... 5년 이후 비전 제시

삼성전자의 데이비드 은(사진) 사장이 최근 삼성전자 최고혁신책임자(CIO)에 정식 임명됐다. 삼성전자에서 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CIO 직책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데이비드 은 사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5년 이후 삼성전자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이는 진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출신의 은 사장은 구글 콘텐츠 파트너십 총괄 부사장, 타임워너 미디어 통신 그룹 최고담당자, 배인앤컴퍼니 경영 컨설턴트 등을 지냈다. 특히 구글에서 일할 때 유튜브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은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장 본연의 업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우수인재 확보,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동시에 사업부문별 혁신 전략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영입한 세바스찬 승 최고연구과학자(CRS), 대니얼 리 부사장, 래리 핵 전무 등과 함께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5개국에 설립된 인공지능(AI) 연구센터와 연계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에 모든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CIO 직책이 생긴 것은 의외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3개 사업부문별 최고경영책임자(CEO) 외에 ‘최고책임자’라는 명칭이 붙는 자리는 현재 손영권 최고전략책임자(CSO), 노희찬 경영기획실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정도밖에 없다. 송영록 기자 syr@

‘멀고 먼 길’ 쓴 김초혜 시인 ‘공초문학상’

김초혜(75·사진) 시인이 ‘제26회 공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을 주관하는 공초송모회는 시집 ‘멀고 먼 길’을 쓴 김 시인이 올해 제26회 공초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노년에 이른 시인의 해맑은 눈이 돋보인다. 그러면서 겸허가 가득하다”라고 평했다.

소설가 조정래 작가의 부인이기도 한 김 시인은 1964년 시집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떠돌이 별’, ‘사랑1’, ‘사랑2’, ‘사랑3’, ‘세살살이’ 등이 있으며 한국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뽑힌 시집 ‘멀고 먼



길’은 인간 삶의 가치와 본질을 적극적으로 묻고 탐구한 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긴 울림을 준다. 시인은 작품 속 ‘길’과 ‘꽃’을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말한다.

한편, 공초문학상은 시인 공초 오상순(1894~1963)을 기리고자 1993년 제정된 상으로 등단 20년 이상 시인에게 준다.

시상식은 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시상식 이후 서울 수유리에 있는 공초 묘소를 참배한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켈로부대 출신 남북자 위패 현충원에 봉안

인천상륙작전 기여 최원모씨

6·25 전쟁 당시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출신 남북자 최원모씨의 위패가 현충원에 봉안된다. 남북자 위패가 충혼당에 봉안되는 것은 처음이다. 5일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최 씨의 위패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에 최 씨의 부인 고(故) 김애란 씨의 유골과 합동 봉안된다.

켈로부대는 6·25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대다. 최 씨는 6·25 전쟁 당시 켈로부대에서 활동했다가 1967년 남북대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67년 6월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봉북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뒤 선원 일부를 돌려보냈지만, 켈로부대 출신인 선주

최 씨를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다.

정부는 켈로부대 소속으로 6·25에 참전한 최 씨를 2013년 유공자로 인정해 남북자에게는 처음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듬해 최 씨는 배우자 김 씨와 함께 서울현충원에 있는 부부위패판에 이름이 새겨졌다. 이후 정부는 6·25전쟁 당시 남편과 함께 켈로부대로 활동한 김 씨의 이력을 확인해 지난해 김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같은 해 국립묘지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김 씨의 위패뿐 아니라 유골을 현충원에 봉안할 수 있게 됐다.

현충원 관계자는 “남북자의 위패가 충혼당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공자의 명패에 사망일 대신 남북 일자를 기재하는 사례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조셉 윤, 美 맨스필드재단 석좌연구원 임명

미국 워싱턴D.C.의 아시아 관계 전문 싱크 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은 4일(현지시간) 조셉 윤(사진)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석좌연구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프랭크 저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사는 대북 관계와 동아시아 정책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라며 “성공적이고 오랜 외교 경력을 통해 쌓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30여 년의 외교 경력을 기반으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당 수석 부차관보와 주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거쳐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북 정책이 있어 대표적인 ‘대외파’로 알려진 그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2월 대북정책대표직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의견을 내는 등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 워싱턴 D.C.에 소재한 맨스필드 재단은 비영리 싱크탱크로 특히 미국과 아시아 관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임소연 기자 ronsyoon@

최옥경 교수·몽펠리에 韓문화축제 등 ‘한불문화상’

한불문화상 심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낭트 3대륙 영화제, 최옥경 프랑스 국립동양어문대학(INALCO) 교수에게 한불문화상을 수여했다. 1999년 제정돼 올해로 18회를 맞은 한불문화상은 프랑스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수상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문화축제 ‘코레디시’는 재북 무용가 남영호 씨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개최된 한국문화예술 축제이다. 매년 11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프랑스 남부와 지중해 권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연과 춤, 미술 등을 활발하게 소개해왔다.

이주혜 기자 winjh@

낭트 3대륙 영화제는 대표적인 프랑스의 아시아 영화제로 1979년 시작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영화를 소개하며 1986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영화를 프랑스에 알렸다. 지난해에는 신상욱 감독 회고전을 마련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연산군’ 등 15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최옥경 파리 INALCO 교수는 프랑스 내 대표적인 한국 미술사학자이다.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며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최 교수는 프랑스에서 이우환 등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석굴암과 불국사의 아름다움을 다룬 책을 출간했다. 역대 한불문화상 수상자로는 음악가 정명훈, 백건우, 나윤선, 무용가 안은미 등이 있다.

배우 이세영, ‘겨울왕국 특별전’ 내레이션 참여

배우 이세영(사진)이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 메인 티저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이세영 소속사 프렌티TPC는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전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대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주제로 한 정식 라이선스 테마전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화라고 소개했다. 전시 제작사 STP라이프 관계자는 “이세영 특



유의 사랑스러움과 밝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겨울왕국’과 잘 어울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겨울왕국 특설돔에서 열린다.

김진희 기자 jh6945@

US여자오픈 준우승 김효주, 세계랭킹 33위로

4일(한국시간)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준우승한 김효주(23)가 세계 랭킹 33위로 경총 뒤편었다.

지난주 세계 랭킹 67위였던 김효주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73회 US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에게 패했으나 세계 랭킹은 34계단 급상승했다.

연장 내 번째 홀에서 우승을 확정짓 주타누간은 지난주 5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US여자오픈에서 단독 9위를 기록한 ‘골프 여제’ 박인비(30)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했고 박성현(25)이 5위, 유소연(28) 6위, 김인경(30) 7위, 최혜진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김효주(23)가 4일(한국시간) 미국 옐라배미주의 쇼얼 크리크 클럽(72·6696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라운드를 마친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 10위 등으로 한국 선수들이 10위 안에 포진했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윤영지 원과장 조용수
- ◆교보증권 <부부장 선임> △JB부문 박종길 <본부장 선임> △DCM본부 이이남 △프로젝트금융본부 최성만 <부서장 선임> △채권금융부 유승주 △기업금융1부 강상진
- ◆코리아텍 △기획지원본부장 김종철 △교육본부장 최영우 △기획조정팀장 김선구 △역량개발교육팀장 신진호 △노사교육팀장 신언우 △청소년교육팀장 강지욱
- ◆뉴데일리 △뉴데일리 광고마케팅팀 부장 이상준
-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홍성필 △편집국장 경제부장 이규성 △편집국 산업부장(부장대우) 홍성윤

부음

- ▲김영숙씨 별세, 진기천(보훈개발원 기획관리부장)·기욱(글로벌시스템즈 기술기획팀장)·기선·기영씨 모친상, 최근덕(IMT 호텔 이사)·박노철(마포구청 주무관)씨 장모상 = 4일, 기병 농협문화센터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1-581-4442
- ▲박한익씨 별세, 명준(전 대우조선해양전무)·영준(금융감독원 부원장)·현준(캐나다 사업)씨 부친상, 손홍규(연세대 부총장)씨 장인상, 이지희(남천병원 치과과장)씨 시부상, 박용진(코스톤코리아 상무)씨 조부상, 조상현(전 동양오리온

- 즈 농구단 코치)씨 처조모상 =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후 2시, 02-2227-7580
- ▲이인생씨 별세, 박원식(전 한국일보 미래전략실 차장)·현식(오리온 영업2부 문장)씨 모친상 = 4일, 중앙대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 02-860-3506
- ▲안재홍씨 별세, 기일(레디아테크놀로지 대표)씨 부친상 = 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1-384-4634
- ▲태만순씨 별세,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민(미국 거주)·해린(미국 거주)씨 모친상 =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2-3010-2236



마트에 없는 물
TV광고 없는 정수기
영업사원 없는 회사

“물 소문만으로 33년”

오직, 물

한우물

물맛부터 다른 이중전기분해방식의 전해 약알칼리수 - 한우물



최첨단 전자식 냉온 정수기
▶HAN-CH3000S

특성 냉수, 온수 / 색상 블랙, 화이트
| 정수량 4,000L의 뛰어난 필터성능
| 터치 한 번으로 내맘대로 물량 조절
| 세정기능을 통한 최상의 전기분해 유지



따뜻한 물도 바로 직수형 온정수기
▶HAN-EP5100

특성 정수, 온수, 미온수 / 색상 그레이, 레드
| 3단계 온수 기능으로 용도에 맞게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간편하게 바로 직수형 정수기
▶HAN-EP5000

특성 정수 / 색상 레드, 스카이블루
|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성능은 그대로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건강한 물, 한우물 「나처럼」 무료 시음 이벤트!

무료 시음을 신청하시면 건강한 약알칼리 음료 나처럼 500ml 4병을 택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고객센터 1588-4804로 연락주세요.



“생큐 BTS!”... ‘방탄중국’ 뚫은 엔터株 불타오르네

증시 달군 ‘방탄소년단 효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엔터테인먼트 상장기업의 매수세도 확대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되는 등 관련 업종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BTS의 3집 앨범이 비영어 앨범으로는 13년 만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BTS의 새 앨범은 발매 첫 주에 13만 5000장이 팔렸으며,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K-팝 그룹 중 최초로 ‘빌보드 핫100’ 10위에 올랐다.

◇빅히트 가치 급등...SM·YG·JYP 대표 엔터주도 ‘쑥쑥’ = BTS의 글로벌 성과로 인해 K-팝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리스크 발생 이후 중국시장에서 수익이 악화하며 하락세를 이어오던 엔터 기업들은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초 3만4300원까지 떨어졌던 에스엠(SM)의 주가는 1일 4만2050원으로 마감하면서 한 달 반 만에 4만 원선을 회복했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최근 9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등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

에스엠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NCT, 레드벨벳 등 소속 아티스트가 모두 활동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부진했던 자회사 SM C&C도 2



‘빌보드 200’ 차트 1위 등극... 세계인 이목 집중 중국 ‘한한령’도 완화되며 엔터기업 매수세 확대 ‘빅히트’ 내년계 성장 절차...기업가치 1.2兆 육박



분기부터 광고 성수기에 접어들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다수의 중국 팬덤을 확보한 엑소의 중국 콘서트가 재개되면 연간 60억 원 내외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성장이 온기로 반영된다면, 중국에서 연간 1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9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부진하던 와이엔터테인먼트(YG)의 주가도 상승세다. 2만 67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1일 장중 2만9050원

까지 상승하며 3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대표 아티스트인 빅뱅의 군 입대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와이엔터는 하반기 블랙핑크와 아이린, 위너 등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이달 15일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아이린, 위너가 컴백한다고 밝혔다. 빅뱅 멤버인 승리 역시 국내외에서 솔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지난달 중순부터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1일 주가는 2만6100원까지 치

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JYP엔터는 올해 2분기부터 트와이스, 갯세븐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아시아, 월드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1% 하락한 96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158% 오른 225억 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황현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BTS, 엑소 등의 글로벌 활동이 강화되면서 공연 수출이 아시아 외 기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체계화된 아이돌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글로벌 전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을 보유한 기획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빅히트 성장 가능성에 지분법 평가 이익 관심 ↑ =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증시 상승은 초유의 관심사다. 금융투자업계는 빅히트가 올해 대표 주관사를 결정하고 내년계 성장 절차를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성장 후 빅히트의 기업가치는 1조 원에 달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빅히트의 지난해 매출은 924억 원, 영업이익은 3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163%, 214% 증가한 수치다.

BTS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최근 1년간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증권업계는 “빅히트의 실적 성장이 앨범 판매에서 콘서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매출액 1400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 당기순이익 400억 원을 전망했다.

넷마블게임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빅히트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평가 이익도 관심 대상이다. 지분법 평가 이익이란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지분 비율에 따라 B회사의 당기순이익을 A회사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최근 BTS의 인기를 볼 때 지분법 이익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63억 원 수준이다. BTS가 최근 발매한 신규 앨범의 흥행 성과를 볼 때 연간 지분법 이익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기훈 연구원은 “BTS는 빅뱅처럼 한 세대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아티스트형 그룹으로, 국내 1위 가 글로벌 1위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빅히트의 1년 내 성장을 가정할 때 적정 시가총액은 주가수익비율(PER) 40배를 적용한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기획사들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우선 기자 sun@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KYOBK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입종 10% 청구 할인
교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번디엔루니스 및 여학생일 용시로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차에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기고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새로운 K-POP의 金脈 ‘유튜브’

글로벌 유료 가입자 가파른 증가세... 3대 기획사, 관련 매출 200% 성장 예고

유튜브의 등장으로 엄청난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음악과 같은 문화상품 소비에 스마트폰 활용도가 상승하면서 유료 오디오(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및 유튜브(비디오)의 동반 성장 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200’ 1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K-팝(pop)의 저변이 더욱더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3대 기획사의 지난해 유튜브 합산 매출은 110억 원대를 기록했지만, 유튜브의 거의 모든 지표가 100~200% 성장하면서 내년 합산 매출은 41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유료 가입자는 매년 80만 명 내외로 성장 중이며, 이르면 2019년까지 저작권료가 또 한 번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기획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2019년 SM, JYP, YG의 예상 영업이익에서 유튜브의 기여도는 각각 11%, 15%, 31%로 추정한다.

지난해 글로벌 음악 산업 규모는 약 1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성장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피지컬(-5%), 다운로드(-21%)는 줄어든 대신, 스트리밍이 전년 대비 41% 성장해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38%)을 차지했다. 전 세계 유료 스트리밍 가입자는 전년보다 6400만 명 늘어난 1억7600만 명에 달한다. 매년 가파른 성장으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의 가입자는 각각 7500만 명과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포티파이 유료 가입자 비중은 44%로 급상승하는 등 오디오 스트리밍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멕시코·브라질·한국 시장의 경우 음악 청취 시 스마트폰 활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근 6개월 이내 유료 오디오 사용



△유튜브로 음악을 청취하는 비중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볼 때도 음악 감상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도는 2016년 59%에서 2017년에 68%로 상승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활용도가 가파르게 상승, 향후 수년간 글로벌 음반사들의 유료 오디오 스트리밍, 유튜브 매출의 동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내 음원 스트리밍 가격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음악을 듣는 비중이 너무 높았던 만큼,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이 월 3000원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비싸다는 이유로 통신사 할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두 배 많은 6000원, 2016년에는 33% 더 증가한 80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런데도 유료 가입자는 2013년 480만 명에서 2017년 78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재 국내 음반 시장은 약 8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 47개년 평균에서 17% 상승한 수치다. 디지털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 2011년 48%에서 2017년 85%까지 상승했다. 또 음원 징수 개정이 이르면 상반기 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도출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초 “저작권자들의 몫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분배비율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몫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K-팝 기업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이스트·넷마블 '방탄과 함께 춤을' 엘비세미콘, 덩달아 급등 '투자주의'

우후죽순 늘어난 테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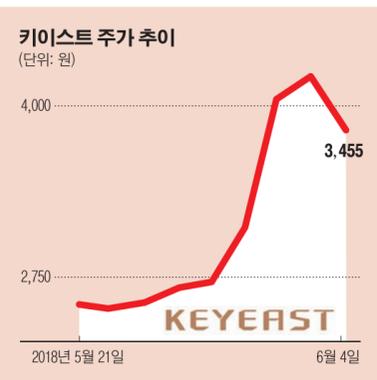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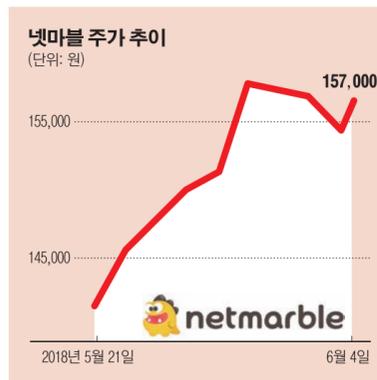
국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기록하자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는 키이스트다. 키이스트는 일본 자회사 '디지털에드벤처(DA)'가 방탄소년단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어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BTS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 전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이스트' 자회사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빌보드 차트 1위 이후 이틀간 50% 급등 빅히트 2대 주주 '넷마블' 주가도 평균 "BTS 관련 없다" 밝힌 '이스타코' 19% ↓ 거래소 "근거없는 소문, 투자 주의해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키이스트의 주가는 빌보드 차트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무려 50% 급등했다. 이틀 만에 1.5배가량 뛴 셈이다. 29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30일 역시 29.97%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였다. 다음 날인 31일에도 전날보다 4.32% 오른 4230원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혜주는 넷마블로, 역시 BTS 인기 급증으로 수혜를 입었다. 2주 전만 해도 14만 원대 초반을 달리던 넷마블 주가는 BTS 1위 기록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6만 원을 터치할 기세다.

넷마블은 이날 4일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5.71%를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분 취득 비율에 따라 넷마블 2분기 실적부터 빅히트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제표상 평가이익으로 반



영된다. 앞서 넷마블은 4월 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사업적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빅히트의 보통주 44만5882주(25.71%)를 2014억 원에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자회사인 와이제이엔터테인먼트도 덩달아 수혜를 입었다. 와이제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전일 대비 16.18% 오른 4020원에 장을 마감하며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수혜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종목은 조그마한 이슈에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엘비세미콘이다.

이 회사는 관계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지분을 11.09%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탄소년단 수혜주로 거론됐다.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4거래일 연속 30%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 이 기간 엘비세미콘 주가는 230%가량 상승하며 2000원대에서 700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단기 급등·불건전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31일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하자, 이날 하루에만 21.54% 하락했다.

부동산·외식사업을 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이스타코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스타코는 빌보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문에 지난달 29-30일 이

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이스타코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고, 다음 날에는 이스타코 측이 "빌보드코리아나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없다"라고 밝히자 곧바로 18.69% 급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상당수가 '묻지마식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환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엔터·미디어 담은 가치주 펀드 '방긋'

'교보약사위대한중소형밸류' 10.12%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일부 가치주 펀드들이 올해 엔터·미디어 주의 독주에 힘입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관련 테마주들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효과와 한중 해빙무드 조성 기대감에 상승 반전하면서 이들 담은 펀드들도 평가차익을 누리게 됐다.

펀드평가업체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가치주 펀드 중 1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교보약사위대한중소형밸류[자]1(주식)A1(10.12%)'로 나타났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코스피 수익률과 비교하면 11.9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한국밸류10년투자중소형[자](주식)C-A(8.76%)',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자](주식)H-A(6.69%)'가 각각 3위, 5위에 올랐다.

이들 펀드의 공통점은 엔터·미디어주의 펀드 편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자](주식)A의 경우 JYP엔터(6.87%), CJ E&M(6.52%), 제이콘텐트리(3.94%) 등의 펀드 내 비중이 무려 17.3%에 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이었던 엔터·미디어주가 작년 3분기 이후 반등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펀드들도 과실을 누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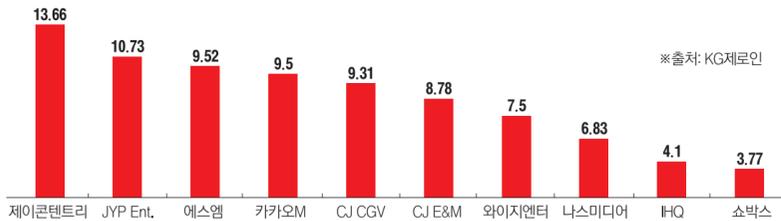
엔터·미디어주가 전통적인 가치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1세대 가치주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이재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사장의 선택에도 눈길이 모아진다. 그가 JYP엔터에 주목한 것은 주당 4000원대를 오갔던 2016년 초반이었다. JYP엔터가 4000원대를 벗어나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 이후의 얘기다. 이날 증가 기준 JYP엔터는 2만6100원으로 무려 6배 넘게 올랐다.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은 "엔터주라는 업종별 특성보다는 개별 밸류에이션을 따져 보고 투자했다"면서 "JYP엔터는 2-3년 전인 2016년부터 꾸준히 지켜봐 온 종목으로, 작년 한순간 매집해 이익을 내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엔터·미디어주가 여전히 가치주 투자자의 영역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소속사 대표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가 유사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투자 성향에 적합한 가치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TIGER미디어콘텐츠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단위: %)



미디어콘텐츠 ETF도 '활활'

'TIGER 미디어...' 5월 수익률 5.99% 제이콘텐트리·JYP·에스엠 등 미디어 업종 올 이익개선 성장 기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디어·콘텐츠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과 이탈리아 정정 불안 등 여러 약재가 겹치면서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익률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터주로 구성된 'TIGER 미디어콘텐츠ETF'의 5월 한 달간 수익률은 5.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2.19%)는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 여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여파에 ETF 수익률 상위 대부분이 기초지수를 역방향으로 추격하는 인버스 ETF들이 차지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증시 강세장을 주도해온 바이오 관련 ETF의 수익률이 고꾸라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미디어콘텐츠 ETF가 수익률 부분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최근 국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형 기획사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그렸고, 이들을 담은 ETF 수익률도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펀드평가사 KGI에 따르면 'TIGER 미디어

콘텐츠ETF'의 구성 종목은 편입 비중 순으로 △제이콘텐트리(13.66%) △JYP Ent.(10.73%) △에스엠(9.52%) △CJ CGV (9.31%) △CJ E&M(8.78%) △나스미디어(6.83%) △쇼박스(3.77%) 등이다.

방송 콘텐츠 제작업체인 제이콘텐트리는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32% 넘게 올랐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올 들어 86% 가까이 올랐다. 1일에는 장중 2만61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에스엠도 올 들어 19% 넘게 오르며 3만 원대였던 주가가 4만 원대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콘텐츠 미디어 업종의 이익 개선을 점치고 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넷플릭스 중국의 아이치이 등 글로벌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 확대에 따라 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매출 규모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과 맞먹는 중국시장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 및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증권가의 또 다른 관심사는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글로벌 아이돌'로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여부에 있다. BTS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름값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 역시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대형 3대 기획사로 통하는 에스엠, JYP,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제치게 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 TAX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11종의 사업성 경비 최대 5% 포인트 적립
- 병원·약국·대중교통 5% 할인
- 전 주유소 리더당 50원 할인
- 핸드폰 구매 시 요금할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9988.or.kr) 복지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장보험에 따라 예금보장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이므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세계 첫 '친환경 슬래그 처리' 특허... 해외 러브콜 쇄도



ECOMAISTER

42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는 1976년 설립돼 1982년 법인으로 전환한 제조업체이다. 40년의 업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력 사업은 철도차량 차륜가공기계 및 계측·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철도사업과 철강 및 비철금속 슬래그(Slag)를 재활용하는 환경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 비중은 환경 사업 약 68%, 철도 사업 약 32%로 각각 구성돼 있다.

경협 바람 타고 株價 롤러코스터 세계적 제철기업과 SAP 컨설팅 슬래그 처리·PS볼 판매 이중 수익 조장 생산 증가로 발전 가능성 ↑

◇공모가 회피로 잡음... 남북 경협 국면 롤러코스터 행보 = 올해 3월 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에코마이스터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하단인 6000원보다 낮은 5200원이다. 공모 규모도 최대 114억 원을 기대했지만, 69억6800만 원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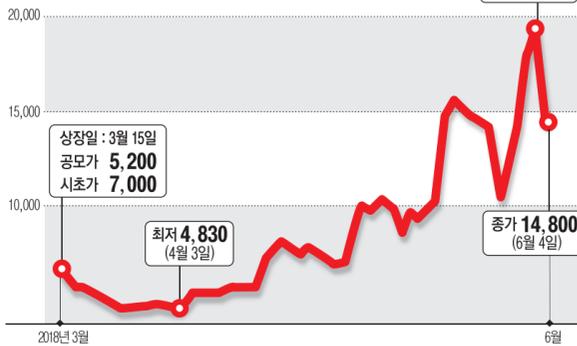
에코마이스터는 지난해 초 코스닥상장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절차부심 끝에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평가 기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했지만, 제약·바이오 IT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 낮은 공모가로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에 애로가 불어 커지면서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적 개선 등 사업 전반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아 주가 상승 시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관투자자는 최근 한 달간 1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남북경협 국면에서 철도사업 부문이 부각되면서 급등했다. '4·27 판문점 선언' 직후 지난달 31일까지 170%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종가는 공모가 대비 244% 오른 1만 7900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 발언으로 하루 만에 28% 이상 급락해 테마주 특유의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 부각... 실적의 열쇠는 환경사업 = 에코마이스터는 친환경 슬래그 처리 특허 기술인 'SAT(Slag Atomizing Technology)'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슬래그는 철강,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찌꺼기다. 대부분의 철강업체와 비철 제련사는 슬래그에 물

에코마이스터 주가 추이 (단위: 원)



을 뿌려 3개월 이상 냉각 및 숙성 과정을 거친 뒤,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에코마이스터가 개발한 SAT는 슬래그에 고압의 공기를 분사·급랭시켜 'PS볼(Precious Slag ball)'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제조한다. 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SAP(Slag Atomizing Plant)'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등 국내 철강사와 고려아연과 같은 비철 제련사에 이미 구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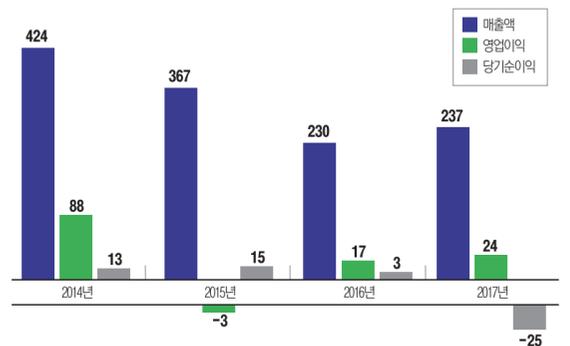
에코마이스터는 철강·비철 제련사로부터 슬래그 처리 비용을 받는가 하면, PS볼 판매까지 가능해 이중 매출 구조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렌코아(Glencore), 유니코어(Umicore), 사브(SAAB) 등 세계적인 업체와 SAP 구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AP 구축이 확

대되면 슬래그 처리 수익과 PS볼 판매가 누적 증가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컨설팅이 실제 SAP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적 성장 가능성도 높다"라고 분석했다.

철도사업에서도 검수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시장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국내 유일의 철도차량 차륜가공 기계 업체다. 현재 CNC차륜전삭기, CNC차륜선반, 일상 자동검사장치 등 국내 철도검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운행 중인 철도 및 지하철 차체 시기를 결정하는 종합 검수 시스템도 제공한다. 제철을 기반으로 영위하는 국내외 철도 사업의 수요처가 환경 사업과 유사해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에코마이스터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씨앤지하이테크·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올해 실적 성장 원년 전망 잇따라 = 에코마이스터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2018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398억 원과 71억 원으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237억 원), 영업이익(24억 원)과 비교할 때 각각 67.93%, 195.83%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조강 생산량은 연간 약 6900만 톤이며, 약 3000만 톤의 슬래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SAP 설비를 이용해 친환경 처리가 되고 있는 슬래그는 약 350만 톤으로, 국내 배출되는 슬래그 양의 약 12%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슬래그의 양이 연간 약 10억 톤에 달하는 데 비해 SAP 도입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과, 조강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슬래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SAP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게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최두선 기자 sun@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장비 공급... 품질 ↑ 원가 ↓



43 씨앤지하이테크

씨앤지하이테크는 화학 약품 혼합 공급 장치 전문기업이다. 200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화학 약품 중앙 공급장치(CCSS)를 만든다. 2003년 국내 최초로 해당 장치를 개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나가세산업과도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 공급계약도 맺고 있다.

1분기 매출 52%·영업익 150% ↑ 핵심분야 특허기술만 31건 보유 현상폐액 재생 등 사업 확대 박차 '별칭=손실' 수익구조 불안감 해소

◇대기업 박차고 후배들과 의기투합해 창업 = 씨앤지하이테크의 홍사문 대표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전자에 몸담았다. 재직 당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약품 중앙공급장치를 담당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창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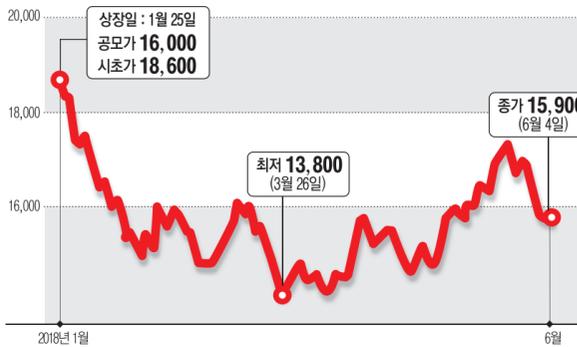
홍 대표는 2002년 12월 씨앤지하이테크 전신인 씨앤지테크를 설립했다. 이후 홍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 후배들과 의기투합해 씨앤지테크를 법인으로 전환, 씨앤지하이테크를 설립했다. 2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9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다. 5명의 등기임원 중 3명이 삼성전자와 삼성SDI 출신이며, 임원 모두 반도체 업계 1세대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중앙에서 공급한 단일 화학약품들을 각 세정 장비에서 혼합한 후에 사용하는 데, 기존에는 장비 간 농도 편차로 인한 공정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기 쉬웠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이 농도를 중앙에서 한 번에 맞춰주는 기술을 개발, 이를 적용한 CCSS를 생산 중이다. 일괄 혼합해 농도를 맞춰 공급하면 공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반도체 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는다. 회사는 현재 핵심 분야에서 31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280억 원,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150% 성장했다.

◇올해 상장 1호... 주가는 공모가 맴돌아 = 올해 첫 코스닥시장 입성 기업이었던 만큼,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증시 데뷔전도 비교적 성

씨앤지하이테크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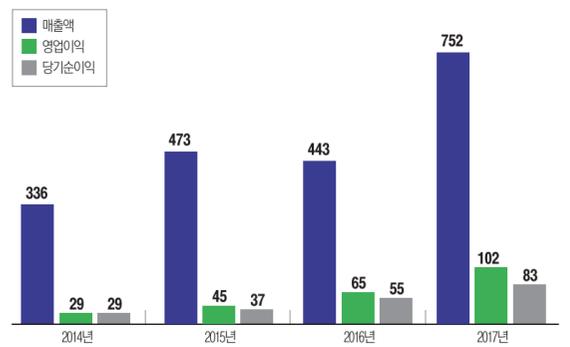
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올해 1월 이틀간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249.1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1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서는 최종 청약 경쟁률 625.64대 1을 기록했다. 상장일인 같은 달 25일 공모가보다 16.3% 높은 1만86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1만8650원으로 첫날 거래를 마감했다. 상장 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공모가 수준을 회복해 현재 1만6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고객사 확보 =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BOE 등 해외 반도체 기업과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SK하이닉스 중국 법인과 76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장비회사라는 특성상 삼성과 같은 주요 고객사의 투자 전략과 업황이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는 상장을 기점으로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혼합장치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달 10일 약 1억 원을 투자해 일본 나가세산업 중국법인의 자본 30%를 인수한 바 있다.

씨앤지하이테크는 성장동력으로 화학약품 운반과 저장에 필수 소재인 라이닝시트 국산화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유럽,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에 성공하면 시장성은

씨앤지하이테크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씨앤지하이테크·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충분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화학약품 보관 탱크 내벽의 부식을 막는 시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친환경 공정' 관련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사명 씨앤지(C&G)는 '클린(Clean)'과 '그린(Green)'의 약자다. 깨끗한 세정과 친환경 공정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담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세정 후 발생하는 대량의 현상폐액을 회수, 정제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회사는 미국, 일본 기업과 올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현상폐액 재생 플랜트를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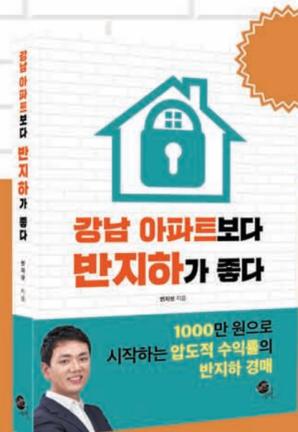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률 10%를 이룰 수 있다!

가성비 갑, 반지하 경매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

- #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되는 부의 새로운 추월차선
- # 월급쟁이가 돈 걱정 없이 퇴사하는 법
- #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 # 경매로 평생 월급 받자



이젠, 기준금리 올려야만 물가 오른다?



김남현의 월가일부

'네오피셔리즘' 주목하는 한은

한국은행이 '네오피셔리즘(Neo-Fisherism·신 피셔리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은이 개최한 '2018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패널토론을 제외 한 네 개 세션 중 한 세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 이론은 그동안 정통경제학 이론과 180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은과 정통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배척돼 왔다. 이런 점에서 한은의 이 같은 변화는 실로 전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은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기조를 강화하거나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물가전망치를 1.6%(상반기 1.4%, 하반기 1.7%)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내부적으로 더 중시하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드 올해 1.6%(상반기 1.4%, 하반기 1.8%)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전망치는 각각 2.0%로 같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월 금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가면 조금씩 높아져서 1%대 중반 또 그 뒤로 가면 1%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타깃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 결정을 할 때는 현재의 물가보다는 장래의 물가를 더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태도 변화, 정통방식으로는 물가 올릴 수 없다는 인식 = 한은의 태도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다만 둘 다 관통하는 문제는 역시 전통적 통화정책 방식으로는 물가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4년 4월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번이나 인하해 당초 2.5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린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 그간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과 낮은 물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해왔지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물가는 되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소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편승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되레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압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2.00%까지 인하했던 전력과 겹쳐지면서 최근 한은 내부에서조차 내려도 너무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에서 열린 '2018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통화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이주열 총재 4년간 금리 낮췄지만 경기 오히려 침체되고 물가 떨어져 非전통적 통화정책 필요성 제기

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간의 인하 정책으로 확대된 완화 정도를 최소한 중립 수준(2.00% 추정)까지 되돌리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해 인상과 향후 인상 기조를 긴축이 아닌 '안화 정도의 조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물가 상승은 예년만큼 높지 않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실제 4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안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물가의 진행 경로 등을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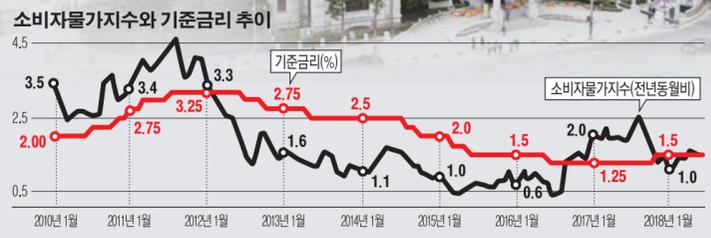
실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보면 기준금리가 1.25%였던 2016년 6월 0.7%에 머물렀다. 작년 초 2%를 넘나들던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1%대 상승세로 주저앉았다. 지난해엔 1.5% 상승에

그쳐 한은의 물가목표치 2.0%와는 거리가 있다.

이주열 총재는 4일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오피셔리즘을 제1주제로 정한 것과 관련해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중앙은행의 정책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낮아진 중립 금리, 자국 통화정책의 전이(spill-over) 효과와 역전이(spill-back) 효과 등의 측면에서 통화정책 환경이 변했다"고 진단하면서 "중앙은행에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한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단아 네오피셔리즘, 100bp 금리 인상하면 1년 내 물가 1%P 올린다 =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1세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마틴 유리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신피셔(Neo-Fisher) 효과의 성립 여부를 실증분석(미국은 1954년 3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일본은 197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한 결과 명목금리를 장기적으로 100bp 인상하면 항구적 금리 인상 충격에 인플레이션이 1년 이내에 거의 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명목금리보다 장기 균형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실질금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은 미국과 동일하게 신피셔 효과를 지지했으나, GDP에 대한 반응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다 2분기 이후 반등했다. 반면 일시적 금리 인상 충격은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GDP를 감소시키며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등 통상적인 예측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신피셔' 단기간 효과 성립 주장하며 물가 견인 위해 금리인상 기조 강화 일부 금통위원 반대 입장 표명하기도

마틴 유리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리 하한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을 장기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명목금리를 장기 균형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정책이 실질금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셔 효과는 명목금리와 인플레이션율 간 일대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신피셔 효과는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이론 연구들은 항구적이고 신뢰성 있는 명목금리 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즉각 상승시켜 신피셔 효과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7월 스티븐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네오피셔리즘, 저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아이디어 또는 가장 눈에 띄는 해결책'이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54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를 분석한 결과 Fed가 금리를 올릴 때 물가가 올랐다. 또 금리를 인하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존 이론이 그간 틀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올

림으로써 시장의 기대인플레이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기존 피셔방식으로 알려진 명목이자율(R)은 실질이자율(r)과 기대인플레이(π)의 합이라는 데 기반한다. 즉, 실질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금리 하락은 인플레이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은 금통위원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전통이론과는 다르지만 일견 일리는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모형과 이론을 만들고 그게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이론가들은 거기에 매몰되기도 한다"며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정통 경제학자 출신인 조동철 위원은 한은이 금리인하를 하고서도 물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금리인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네오피셔리즘과는 정반대 입장인 셈이다.

그는 지난달 9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전간담회에서 "표준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거시경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변동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테일러 룰의 인플레이션 갭에 대한 계수가 1보다 커야 한다"며 "2013년 당시 통화정책과 관련해 낮은 인플레이보다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긴축발작)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www.119medical.co.kr

즐거움 치과
원가정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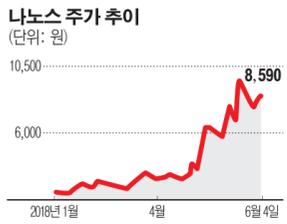
상장사, 해외 바이오 기업 인수 러시

동양네트웍스·나노스·필룩스 등
항암 백신 연구개발 기업 투자
개발 성공엔 천문학적 금액 보상

바이오 테마가 최근 남북경협주에 밀리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국내 상장사들의 러브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T기업 동양네트웍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독일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제약사 '메디진(MEDEGENE)'을 인수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메디진의 주식 165만 주를 303억 원에 인수한다.

인수 후 지분율은 6.72%로, 기존 최대주주였던 'QVT캐피탈'을 제치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메디진은 1994년 뮌헨 세프센데에서 분사되어 창업된 회사로 2000년에 독일 증시에 상장됐다. 메디진은 CAR-T와 유사한



기전을 갖고 있는 고흡암 분야의 차세대 항암 치료법인 TCR(T-Cell Receptor)-T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이다.

광학필터 전문기업 나노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솔크연구소(Salk Institute)'에 기부 형식으로 150만 달러를 투자, 바이오 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솔크연구소는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5대 연구소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된다.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개발한 솔크(Salk) 박사가 주도해 설립됐으며 바이오 기초 연구에 주력하는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특히 알츠하이

머 등 노화로 인한 질병과 식물연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필룩스가 미국 FDA 자문위원으로 있는 스타 웰드만 박사의 '바이럴진'을 인수하고 차세대 항암백신 CAR-T 연구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바이럴진이 개발하고 있는 CAR-T는 세계 최초로 혈액암이 아닌 고흡암에 적용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최근 항암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해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기가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들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백신 개발이 성공한다면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최근 해외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시중 기자 ssj@

국민연금, 게임株 투자 대폭 확대

하반기 신작 중 진출 가능성 커져
넷마블·NHN엔터 7500억 투입

대한민국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들어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완화로 한 풀 꺾였던 중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에 쏟아질 신작 기대감이 투자 확대에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넷마블과, NHN엔터테인먼트에 각각 지분율 5.02%, 5.03% 신규 투자했다. 이날 증가 기준(넷마블 15만7000원, NHN엔터테인먼트 6만6800원)으로 계산하면, 약 75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두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넷마블은 하반기에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과 'BTS월드' 등 14개의 기대작이 대기하고 있으며, 3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

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보다 25.3% 증가한 1401억 원, 당기순이익은 33.6% 늘어난 1124억 원이다. 여기에 최근 넷마블이 25.7% 지분을 보유한 박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200차트 1위를 기록하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동안 주춤했던 두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4월까지 12만 원대를 유지하던 넷마블 주가는 현재 16만 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달 초 5만 원대로 추락한 NHN엔터테인먼트는 현재 6만 원 후반대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종목 외에도 게임주로 컴투스(5.01%), 엔씨소프트(11.86%)를 보유 중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올 들어 지분율 5% 이상 신규 투자한 종목은 24개 기업이며, 반대로 투자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은 16개다. 편입에서 제외된 종목에는 삼성증권, 한샘, 쿠팡홀딩스, 부광약품, 파라다이스, 세방전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사업자 선정

달갑지 않은 中企특화 증권사, 왜...

인력 부족하고 지원금도 적어
사업자 선정되면 오히려 부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사업이 중기특화 증권사에 부담만 자우고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6곳을 상대로 입찰 관련 제안을 받고 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12일까지이며, 금투협은 6개사 중 3개사를 발간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4일 현재까지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 IBK투자증권은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 중기특화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있다 보니 제안서는 아마도 다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안서를 내고 사업자로 선정돼도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존

의 리서치 인력을 가지고 그간 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코스닥과 장외시장인 K-OTC 기업 중 그간 투자 정보가 부족했던 204개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보고서 종류도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 기업분석 수준에 따라 보고서를 크게 3가지로 나눠 발간한다. 그만큼 보고서 발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6개 증권사는 대부분 리서치 인력이 20~30명 수준으로, 대형사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심지어 리서치 전담 인력이 1명인 중기 특화 증권사도 있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금투협은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개 증권사가 약 1억3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셈이다.

한 중기특화 증권사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효과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현대사료, 상장 이틀 연속 상한가 '3가지 이유'

- ① 동종업체 대비 낮은 공모가
- ② 남북관계 개선 대박지원 기대감
- ③ 양돈농장 인수 등 성장동력 확보

현대사료가 상장하자마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동종 업체 대비 낮은 공모가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료 관련주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현대사료는 상한가를 기록한 전 거래일보다 5100원(29.74%) 오른 2만225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공모가(6600원) 대비 237.12% 높은 가격이다. 이날 거래량은 131만8014주, 거래대금은 277억3600만 원을 기록했다. 다음날인 5일에도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제한 폭까지 상승해 2만8900원을 터치했다.

현대사료 주가가 상장 이후 크게 오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서울사무 홍보관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현대사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데는 동종업체 대비 낮은 공모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사료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희망 공모가 범위를 5700~660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6600원으로 결정됐다.

안주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희망 공모가 범위는 지난해 실적 기준 PER(주가수익비율) 6.3~7.3배로, 고려산업·팜스코·선진·팜스토리 등 국내 주요 배합사료 업체들의 평균 PER 11.2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일반투자자 공모 청약에서는 16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09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어보브반도체(2423대 1)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대박지원 기대감이 사료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이날 사료주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이 전 거래일 대비 110원(6.55%) 오른 179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일사료(5.59%), 팜스토리(4.25%), 케이씨피드(3.38%), 팜스코(3.03%), 선진(1.22%)도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사료는 성장동력 확보 및 수직 계열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총 3만 두 규모의 양돈농장 3곳을 인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닭 전드기 역제출 살비제 및 사료 첨가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 외형 성장 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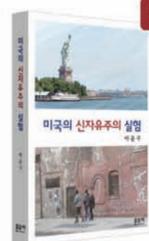
풍부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경제학을 이해한다!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 ◎ 담배, 비싸면 과연 끊을까?
- ◎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 ◎ 소득이 커지면 행복감도 따라서 더 커질까?
- ◎ 세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비교해 보는 이유는?
- ◎ 갈만 보고 중고차를 사기가 겁나는 이유는?
- ◎ 누가 중산층이고, 누가 빈곤층일까?
- ...



이준구 지음 | 584쪽 | 문우사 | 값 20,000원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승자독식정치를 통한 감세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직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관 지음 | 372쪽 | 문우사 | 값 15,000원

"역시,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학자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평가이다!!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힘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 반면, 힘 없는 민족과 개인은 비극의 삶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지도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김종재 지음 | 304쪽 | 마인드맵 | 값 15,000원



중국의 황제들은 여성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황후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짜오지옌민 지음 | 광복선 옮김 | 382쪽 | 마인드맵 | 값 16,000원



2000년 동안 이어진 화교들의 삶 정리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김동하 지음 | 194쪽 | 마인드맵 | 값 12,000원

문의: 031-901-6542 www.munu.co.kr

문의: 070-7550-3758 www.mindtap.co.kr

트리노테크, 전기차 핵심소자 'IGBT' 국산화

<아이에이 계열사>

<절연게이트 양극형 트랜지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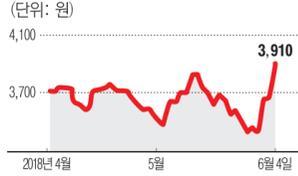
태양광 인버터·철도 등 사용 하반기부터 국내외업체 공급

아이에이 계열사 트리노테크놀로지 650V 필드 스톱 트랜지스터 'IGBT(절연게이트 양극형 트랜지스터)'의 기술 개발에 성공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체들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GBT는 태양광인버터, 풍력인버터, 전기자동차, 철도-해상운송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력변환 반도체이다.

국내 업체 최초로 상용화된 IGBT는 650V 전압에 80A의 정격전류를 제공하

아이에이 주가 추이



며 최대 접합온도 175도를 보증하는 전력 반도체이다. 주로 태양광(풍력) 인버터의 핵심 소자로 사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트리노테크놀로지는 성인 머리카락 두께의 50% 수준인 얇은 웨이퍼 가공기술을 이용해 IGBT의 중요 특성인 도통 손실과 스위칭 손실을 혁신

적으로 감소시켜 기존 해외 글로벌 업체 제품보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HS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에 판매되는 IGBT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25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태양광 관련 국내 IGBT 시장은 앞으로 트리노테크놀로지 신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전력 모듈을 생산하는 계열사 아이에이퍼워트론은 최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의 핵심 인버터를 구성하는 1200V급 전력모듈 제품 개발에 성공해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시연을 진행 중에 있다. 또 1500V 이상의 고속철도용 IPM IGBT 모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전력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철도차량, 산업기기 등에 탑재되는 인버터와 컨버터의 핵심 구성품으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전력모듈 세계시장 규모는 약 41억 달러였다. 환경규제, 에너지 절약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약 5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아이에이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수요가 급속히 늘면서 IGBT 및 MOSFET 등 전력반도체의 공급 증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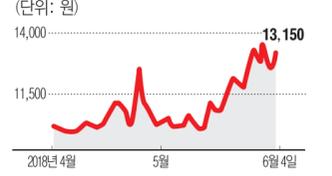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국 합자법인 아이에이반도체기술유한공사에서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해 원가 경쟁력 및 생산 물량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아이에이 관계자는 "국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그 비중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최적의 협력사업 모델로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철도차량 부문에도 참여해 전력반도체와 모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개성공단 토지 이용권 보유 양지사, 경영사업 기대 커

양지사 주가 추이



양지사가 개성공단에 토지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대북 경영 사업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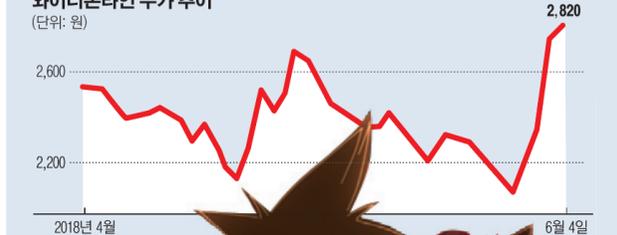
5일 양지사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북 협력 이 이뤄질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양지사는 수첩 및 다이어리, 노트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업계 최대 업체로 1976년 설립됐다. 코스닥 시장에는 1996년 입성했다. 이 회사는 2007년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분단지를 분양받았다. 다만 남북 관계 악화로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에 내에 개설하기로 했다. 남북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설치 장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설립해 개성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와이드온라인 주가 추이



온라인 게임 '와이드온라인' 20억 유증 결정... 활로 찾나

제3자 배정 방식 29일 상장... 신작 개발 병행 필요

온라인게임 개발기업 와이드온라인이 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와이드온라인은 운영자금 20억 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대 주주인 시안 유휴회사가 주당 3834원에 52만1648주를 배정받는다. 납입일은 11일로 신주는 29일 상장된다.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번 증자가 이뤄지면 와이드온라인의 자본잠식률은 50%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1분기 현재 59.12%로 50%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조건이다.

와이드온라인은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 211억 원, 영업손실 98억 원, 당기순손실 1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을 키워 자본잠식률 78.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유상증자를 해오면서 자본잠식률을 낮추고 있다.

아직 이익 구조를 개선시킬 만한 게임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임 사업 매출은 온라인게임 이카루스 등이 23억 원(58.7%), 모바일게임 갓오브하이클 등이 15억 원(37.4%)이다. 일각에선 최근 국산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를 끌고 있는 것처럼 참신한 신작 게임의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997년 주식회사 이모션으로 설립된 와이드온라인은 2002년 8월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05년 11월 주식회사 프리스톤을 흡수 합병해 온라인게임 개발과 게임 서비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으로는 PC MMORPG인 '이카루스' 등을 안정적으로 서비스 중이고, 모바일게임으로는 '갓 오브 하이클'을 개발 및 상용화한 바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미래생명자원, 3조 반려동물시장 진출

이달 기존공장 증설·내달 펫푸드 공장 완공

사료 첨가제 생산기업 미래생명자원이 다음달 반려동물용 식품생산 공장 완공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5일 미래생명자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기존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7월에 펫푸드(반려동물용 식품)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완공 후 한 달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생명자원은 자체 개발한 식품 첨가원료 가바(GABA)를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 합성 GABA와는 다른 천연 GABA로 원료 경쟁력이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미래생명자원의 펫푸드 시장 진출은 일부 관련 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

미래생명자원 주가 추이



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2조3000억 원이며 올해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정도로,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생명자원은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을 위해 하반기 식품수출 관련 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

중국 애완(반려)동물 산업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1500억 위안(약 25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중국 애완동물 식품 시장 규모는 720억 위안(약 12조2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탕, 한일사료 등과 함께 사료 관련주로 꼽히는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제조 사업, 식품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특수가공원료(EP), 기능성 원료인 SLP(오징어간장분말), 기능성 계란인 오렌지오 등이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6월 5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1,217,000	-54,000	(4.2%)
리플	723	-4	(0.6%)
라이트코인	131,900	-4,600	(3.4%)
대시	349,100	-11,000	(3.1%)
모네투	178,300	-7,400	(4.0%)
비트코인골드	48,700	-1,850	(3.7%)
이더리움 클래식	16,660	-1,070	(6.0%)
퀀텀	15,030	-850	(5.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센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SAMSUNG

한낮의 더위도 한 줌의 바람도 없이
무풍으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기에



무풍으로 더 깊어지는
나만의 시간
삼성 무풍에어컨



무풍 지능냉방

실내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24시간 똑똑하게 맞춤 냉방 제공



무풍 지능청정

외부 및 실내 공기 상태를 센싱하여 4계절 내내 알아서 깨끗한 공기 유지



무풍 음성인식

음성 인식으로 복잡한 기능 설정도 간편하게, 상황별 맞춤 제어까지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본체 음성인식은 최대 5m이며 소버저 가이드 적정 동작기준 정면 3m 이내입니다. 빅스비 음성인식 지원은 와이파이 지원 환경에서 가능하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 한